

The 논술	2016 한양대 인문 모의 1차
--------	-------------------

[문제]	(가)의 내용을 근거로 (나)와 (다)에 나타난 각각의 시간 특성을 설명하고, (가) 지문의 밑줄 친 ㉠과 ㉡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1000자, 100점)
------	--

제시문 (가)

에펠탑에 의해 표현된 시간이 찰나요 규칙적인 째깍거림, 천편일률적인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였다면, 프루스트의 소설에서 표현되는 시간은 때로는 하루가 287쪽이나 이어지고 또 때로는 몇 년이 속삭임 한 번 없이 지나쳐 버릴 수 있을 만큼 다양했다. 이렇게 시간은 한편으로는 더할 수 없이 공적이고 획일화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프루스트에게서처럼 더할 수 없이 사적이고 독특하고 그 영혼만의 시간으로 국한되었다. 절대적이고 직선적이고 연대기적이며 수량화될 수 있는 시간을 주관하는 신은 크로노스였다. 또 다른 시간의 신, 훨씬 다채롭고 파악하기 힘든 카이로스가 있었다. 권력은 크로노스에 매우 우호적이며,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동시성을 추구한다. 파시스트 국가들의 거대한 규모의 일사불란한 체조에서부터 하일 히틀러 경례에 이르기까지, 전체주의 국가들은 이 동시성을 찬양해마지 않는다. ㉠ 동시성은 개인을 집단 속에 포섭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의 욕구를 잘 보여줄 뿐 아니라, 갖가지 고유의 시간들을 단일한 세계시간으로 희석시켜 버리려는 목적을 감추고 있다. 이에 반해 카이로스는 타이밍의 신, 기회의 신이요 행과 불행, 길조와 흉조 같은 시간의 서로 다른 측면들의 신이었다. 질적인 시간이라고 할까? 카이로스적인 시간에는 대양의 밀물과 썰물의 흐름 같은, 사상과 음악의 이미지와 순간적인 예술적 영감의 들고남이 있다. ㉡ 만 가지 빛깔의 예술가들이 지배적인 크로노스적 시계 시간의 헤게모니에 오랫동안 저항해 온 것은 당연하다.

제시문 (나)

시간은 여러 가지 기본 물리량 중 하나이다. 시간은 길이, 전류와 같은 다른 물리량에 대한 측정 표준의 기초로 사용되고 있어서 '표준의 표준'이라고 일컫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1초는 태양일(하루)의 $1/24 \times 60 \times 60$ 로 정하였으며, 이것을 태양시라고 한다. 하지만 지구의 자전속력이 자연적으로 변하므로 하루를 기준으로 1초를 정하면 그 실제 길이가 자주 변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6년 국제도량형총회에서 1초를 서기 1900년도 1년 길이의 $1/31,556,925,9747$ 로 결정하였으며, 이것을 역표시(曆表時)라고 한다. 그 후 천체나 지구의 운동을 기준으로 한 시간 표준보다 훨씬 정확하고 안정된 원자시계가 개발되었다. 1967년 국제도량형총회에서 1초를 세슘 원자에서 방출하는 특정한 빛이 9,192,631,770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하였으며, 이것을 원자시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30만 년에 1초의 오차가 있는 원자시계를 개발하여 국가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시문 (다)

너를 만난 날은
날개 달린 날이다
현실이 사라지고

다른 현실이
태어난 날
그러니까 그날은
초현실의 날이다 훗훗
새가 날아오던 날
너를 만난 날은
만신창이가 되어
여름을 힘겹게 보내고
문득 가을이 오던 날
너를 만난 날은
필연의 날이다
머리에서 손이 빠져 나오고
다리에서 얼굴이 튀어나오던
허리에서 설탕이 쏟아지던
불안 비참 치욕 따위가
지루하고 맥이 없던 날들이
모조리 일어나 빛이 되던
아아 내 어깨 죽지에
문득 날개가 돋던 날
너를 만난 날

1. 문제 풀이	
(가)의 내용을 근거로 (나)와 (다)에 나타난 각각의 시간 특성을 설명하고, (가) 지문의 밑줄 친 ㉠과 ㉡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1000자, 100점)	
1) 논제이해	
①	(가)의 시간을 특성에 따라 구별하고 요약하시오.
②	(나)에 나타난 시간은 (가)의 시간 중 어디에 속하는 가를 설명하시오.
③	(다)에 나타난 시간은 (가)의 시간 중 어디에 속하는 가를 설명하시오.
④	밑줄 친 ㉠에 대해 현실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⑤	밑줄 친 ㉡에 대해 현실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2) 제시문 독해 (요약 및 비교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	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
	에펠탑에 의해 표현된 시간이 찰나요 규칙적인 째깍거림, 천편일률적인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였다면, 프루스트의 소설에서 표현되는 시간은 때로는 하루가 287쪽이나 이어지고 또 때로는 몇 년이 속삭임 한 번 없이 지나쳐 버릴 수 있을 만큼 다양했다. 이렇게 시간은 한편으로는 더할 수 없이 공적이고 획일화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프루스트에게서처럼 더할 수 없이 사적이고 독특하고 그 영혼만의 시간으로 국한되었다. ㉠ 동시성은 개인을 집단 속에 포섭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의 욕구를 잘 보여줄 뿐 아니라, 갖가지 고유의 시간들을 단일한 세계시간으로 희석시켜 버리려는 목적을 감추고 있다. 이에 반해 카이로스는 타이밍의 신, 기회의 신이요 행과 불행, 길조와 흉조 같은 시간의 서로 다른 측면들의 신이었다. 질적인 시간이라고 할까? 카이로스적인 시간에는 대양의 밀물과 썰물의 흐름 같은, 사상과 음악의 이미지와 순간적인 예술적 영감의 들고남이 있다. ㉡ 만가지 빛깔의 예술가들이 지배적인 크로노스적 시계 시간의 헤게모니에 오랫동안 저항해 온 것은 당연하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가)는 시간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그 중 하나는 양적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자는 절대적이고 직선적이고 연대기적이며 수량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집단적 동시성을 추구하는 권력에 의해 이용되기 쉽고, 후자는 상대적이고 개인적이고 가역적이며 영혼과 관련된 것이어서 권력자들의 동시적 헤게모니에 저항하는 예술적요소로서 작용한다고 합니다.
(나)	제시문 내용
	시간은 여러 가지 기본 물리량 중 하나이다. 시간은 길이, 전류와 같은 다른 물리량에 대한 측정 표준의 기초로 사용되고 있어서 '표준의 표준'이라고 일컫는다. 1967년 국제도량형총회에서 1초를 세슘 원자에서 방출하는 특정한 빛이 9,192,631,770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하였으며, 이것을 원자시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30만 년에 1초의 오차가 있는 원자시계를 개발하여 국가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나)는 시간이 1초를 정확하게 수량화하여 표준의 표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을 보여주며 철저한 과학적 자연의 시간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는 수량화와 획일화를 통한 공적 시간의 개념이기에 (가)의 양적 시간과 연관됩니다.</p>
(다)	<p>제시문 내용</p> <p>너를 만난 날은 날개 달린 날이다 현실이 사라지고 다른 현실이 태어난 날 그러니까 그날은 초현실의 날이다 훨훨 아아 내 어깨 죽지에 문득 날개가 돋던 날 너를 만난 날</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다)는 특별한 누군가를 만난 날의 시간을 ‘날개가 돋던 날’이라고 표현하며 주관적 시간이 드러내는 절대성과 영원성, 그리고 초현실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개인적 주관에 의해 시간이 변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가)의 질적 시간과 연관됩니다.</p>
3) 구체적 사례로서 설명	
양적 시간	<p>㉠ 동시성은 개인을 집단 속에 포섭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의 욕구를 잘 보여줄 뿐 아니라, 갖가지 고유의 시간들을 단일한 세계시간으로 희석시켜 버리려는 목적을 감추고 있다.</p>
	<p>-> 전체주의적 목적에 의해 획일화된 시간 개념을 사용한 사례 필요</p> <p>일제는 조선을 병합한 후 조선인들을 이용하기 쉽도록 세뇌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학교조례시간마다 모든 학생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도록 한 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모든 조선 학생들의 시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아 일제 군국주의라는 단일한 시간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p>
질적 시간	<p>㉡ 만 가지 빛깔의 예술가들이 지배적인 크로노스적 시계 시간의 헤게모니에 오랫동안 저항해 온 것은 당연하다.</p>
	<p>-> 공적시간 개념에 저항하여 가역적 시간개념을 사용한 예술작품의 사례 필요</p> <p>심훈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에서 일제치하의 현재의 시간에서 고통을 느끼며 광복이 오면 자신의 가족으로 복을 만들어도 좋다고 하는데, 이는 미래의 시간을 현재와 대조되는 바람직한 성질의 것으로 파악한 결과물입니다. 이는 일제의 전체주의적 헤게모니에 대항하여 한민족만의 주관적 시간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p>
4) 답안 작성	
1문단	(가)는 시간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그 중 하나는 양적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질

	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전자는 절대적이고 직선적이고 연대기적이며 수량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집단적 동시성을 추구하는 권력에 의해 이용되기 쉽고, 후자는 상대적이고 개인적이고 가역적이며 영혼과 관련된 것이어서 권력자들의 동시적 헤게모니에 저항하는 예술적요소로서 작용한다고 말한다.
2문단	(나)는 시간이 1초를 정확하게 수량화하여 표준의 표준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을 보여주며 철저한 과학적 자연의 시간에 대해 소개한다. 이는 수량화와 획일화를 통한 공적 시간의 개념이기에 (가)의 양적 시간과 연관된다.
3문단	(다)는 특별한 누군가를 만난 날의 시간을 ‘날개가 돋던 날’이라고 표현하며 주관적 시간이 드러내는 절대성과 영원성, 그리고 초현실성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적 주관에 의해 시간이 변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가)의 질적 시간과 연관된다.
4문단	㉠과 관련된 사례로는 일제의 신민교육을 들 수 있다. 일제는 조선을 병합한 후 조선인들을 이용하기 쉽도록 세뇌교육을 시작했다. 매일 학교조례시간마다 모든 학생들이 황국신민서사를 외우도록 한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모든 조선 학생들의 시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아 일제 군국주의라는 단일한 시간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5문단	㉡과 관련된 사례로는 일제의 공적시간 개념에 대한 심훈의 시를 들 수 있다. 심훈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에서 일제치하의 현재의 시간에서 고통을 느끼며 광복이 오면 자신의 가족으로 복을 만들어도 좋다고 하는데, 이는 미래의 시간을 현재와 대조되는 바람직한 성질의 것으로 파악한 결과물이다. 이는 일제의 전체주의적 헤게모니에 대항하여 한민족만의 주관적 시간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문제 해설 및 출제 의도

본 문제는 세 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문 (가)는 시간의 두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제이 그리피스의 『시계 밖의 시간』(박은주 옮김, 당대)에서 가져온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시간에는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절대적이고 직선적이고 연대기적이며 수량화될 수 있는 것이고, 후자는 상대적이고 개인적이고 가역적이며 영혼과 관련된 것이다. 지문 (나)는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천재)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시간의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특성을 담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시간은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배분된 단위로, 인간의 주관과 내면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지문 (다)는 심훈의 시 「너를 만난 날」이다. 여기에서 시는 오로지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누군가를 만난 날의 절대성과 영원성, 그리고 초현실성 뿐이다. 시간은 모든 인간에게 일상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연현상이지만, 삶의 조건과 내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체험되는 심리현상이면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인지되고 구성되는 예술현상이다. 본 문제는 수험생이 이러한 시간의 여러 층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건에 따라 정확하게 서술하였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두 종류의 시간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묻는 독해력 측정. 둘째, 질적 시간과 양적 시간의 차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였는가를 묻는 표현력 측정. 셋째, 구체적인 예술 작품을 근거로 질적 시간을 적절하게 설명했는가를 묻는 창의력 측정. 이 과정에서 수험생의 지적 수준도 고려될 것이다. 지문 (가)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인문교양서를 활용했다. 지문 (나)는 현행 고등학교 과정

교과서에서 가져왔다. 지문 (다)는 이승훈의 시 「너를 만난 날」의 전문으로 『너라는 환상』(세계사, 1989)에 실려 있는 것인데, 시어가 평이하어 이해에 무리가 없다. 수험생의 과학적 인식과 예술적 인식 사이에 균형이 있는지, 이해와 표현 능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추상적인 명제와 구상적인 사례를 적절하게 상호 전환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목적이다.			
6) 평가의 내용			
1) (가) 지문에서 설명한 시간의 두 종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력. 2) 지문 (나)와 (다)를 각각 ‘양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으로 적절하게 설명하는 표현력. 3) 구체적인 사례로 추상적인 명제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창의력 4) 이해와 지식과 의견을 효율적으로 엮어내는 구성력			
7)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논리와 표현	정확한 단어 선택과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성 등을 평가한다.	10%	
내용 이해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가) 지문에서 설명한 두 가지 시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시간은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며, 최소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고, 그것은 각각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5%
	(나)와 (다) 두 지문에 드러난 각각의 시간 특성에 대한 설명	○ (나) 지문에서 설명한 시간은 철저히 과학, 시계, 자연의 시간 ○ (다) 지문의 시간은 심리, 영혼, 예술의 시간 ○ 공공성, 획일성, 절대성, 직선, 수량화, 크로노스 / 개인, 상대성, 영혼, 예술, 카이로스	25%
	제시한 사례의 적절성과 해석의 창의성	○ 적합한 사례 제시 능력 - 서력, 연호, 군대와 학교의 시간 등 ○ 적합한 사례 제시 능력 - 황진이 시조 ‘동짓달’, 영화 ‘어바웃 타임’ 등 ○ 사례로 든 작품의 시간 특성의 설명 능력	30%
구성과 전개	세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여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질적 시간’을 서술하는 일련의 과정이 자연스럽고 구성이 유기적인가를 평가한다.	10%	

8) -1 우수답안 1

예로부터 사람들은 삶의 길이를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어 반복적인 패턴으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삶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고, 그 결과 시간은 점점 더 정확하고 절대적이게 쪼개어졌다. 그러나 사람들 개개인은 상이한 가치관, 감정 등을 지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똑같이 흘러갈 수 없다. 이처럼 시간에는 절대성, 상대성의 대조적인 특징이 함께 공존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시간의 절대성을 보여준다. 제시문(가)와 제시문(나)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더 정확하고 획일화된 시간을 쪼개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렇게 탄생된 시간의 정확성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더 커졌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은 시간을 배분했다. 이와같은 시간의 절대적인 특성은 제시문 (가)의 ㉠과 같은 위험성, 즉 개개인을 절대적인 시간에 가두어 통제시킬 위험성이 뒤따른다. 예컨대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매일 같은 시간대에 땡전뉴스를 방영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을 강제적으로 국민들에 주입시켰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개인을 집단에 구속시키려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제시문(가)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에는 똑같은 시간이라도 개개인마다 그 시간을 다르게 느끼는 상대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간의 특징은 제시문(다)의 화자가 시적 대상인 '너'를 만난 순간을 초현실의 날, 필연의 날 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시에서 화자가 '너'를 만난 날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획일화되고 통제된 시간속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물론 모두에게는 같은 시간이었지만 화자는 그 순간을 다른 이들과는 다른, 화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채워진 시간으로써 인식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제시문 (가)의 ㉡은 개성이 강한 예술가들이 시간의 절대성에 대해 상대성을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을이 지는 해질녘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에게는 아주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있는 이에게는 너무 짧고 아름다운 시간일 수도 있는 것처럼 예술가들에게도 시간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었던 것이다.

8)-2 우수답안 2

제시문 (가)는 시간의 양면적인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 쪽은 시간을 양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시간을 질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자는 크로노스의 입장을, 후자는 카이로스의 입장을 대변한다.

제시문 (나)는 물리적이고 표준적인 시간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이는 크로노스의 입장에 가깝다. 시간은 다른 물리량에 대한 표준으로서 모든 대상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모든 대상의 시간은 절대적인 수의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정확한 시간에 대한 열망은 끊임이 없었으며 태양사에서부터 원자시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노력은 시간의 절대적이고 동시적인 특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반해 제시문 (다)는 시간의 주관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카이로스적 시간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시에서 화자는 '너를 만난 날'에 자신이 느낀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 '날'을 기점으로 화자의 부정적이었던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는 화자가 그 '날'에 주관적이고 특별한 의미부여를 했기 때문이다.

한편 (ㄱ)의 동시성의 사례는 1930년대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있다. 일제는 내선일체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궁성참배,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일정한 시간에 일본 천황이 있는 궁성을 향해 참배를 해야만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고유성을 부정하고 조선 국민들을 일본인 집단에 동화 시키려는 일제의 전체주의적 욕구를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일제의 압박에 순응한 것은 아니다. 일제에 대해 반기를 든 사람들 중 한명인 이육사 시인에게서 (ㄴ)에서 설명하는 지배적 시계에 저항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의 시 '광야'에는 눈 내리는 현실이라는 일제의 지배적인 시간이 적용되는 암담한 현실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린다'는 표현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이는 지배적인 시간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이며 이러한 저항의 노력은 '초인이 오는 날'을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된다.

8) -3 우수답안 3

제시문 (나)에서는 물리량으로서의 시간의 개념을 제시하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간 측정의 방법과 그 도구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의 절대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시간은 양적 시간으로, 그저 지구의 자전 주기를 바탕으로 측정한 값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전세계 그 누구에게나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가 그 어떤 것보다 공적이고 획일화 되어있다. 반면, 제시문 (다)에 나타난 화자는 '너를 만난 날'을 날개 달린 날, 초현실의 날, 필연의 날 등의 시어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의 시간은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는 시간으로서, 그 무엇보다 사적이고 특별하다. 화자에게 이 날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하루가 1초보다 더 짧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는 같은 시간이라도 그 누구에게는 짧거나 길게, 혹은 특별하거나 평범할 수 있는 시간의 상대성이 드러난 것이다.

제시문 (가)의 <ㄱ>에 대한 예시로 북한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주민들의 일과는 획일화 되어있다. 그들은 새벽 다섯시에 일어날 것을 교육받고 아이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받기 위해 김일성의 동상으로 달려가 그것을 닦는다. 정해진 퇴근시간은 여섯시이며, 열한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집의 전기가 끊겨 반 강제로 취침하게 된다.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일과는 북한의 지도층이 주민들에게 공산주의 이념을 주입하고 독재를 정당화하는데 시간의 동시성을 이용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존 케이지의 '4분 33초'를 <ㄴ>에 대한 예시로 들 수 있다. 이 곡은 재생되는 내내 그 어떠한 악기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저 그 현장에서 들리는 관중의 웅성거림이나 연주자의 발 걸음소리, 그리고 작은 기침소리 하나까지 모두 그 곡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곡은 연주할 때마다 그때 그때 다른 음악이 되고 각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여기서의 시간은 절대 다른 시간과 동일시 될 수 없는 독특한 시간이 된다.

The 논술	2016 한양대 인문 모의 2차
--------	-------------------

[문제]	공통된 화제를 중심으로 제시문 [가]와 [나]를 요약하고, 밑줄 친 ㉠과 ㉡의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제시문 [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옹호하거나 비판하시오. (1,000자, 100점)
------	--

제시문 (가)

문화의 세계화는 지구 차원에서 일어나는 문화 상품의 흐름을 전제로 한다. 우리가 오늘날 문화의 세계화에 대해 말하는 것은 대부분 문화적 재화(영화, 방송, 음반, 언론매체, 특히 잡지)의 전지구화를 뜻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곳곳에서는 맥도널드와 코카콜라로 대변할 수 있는 미국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것은 전혀 다른 기준에 의거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인류의 10분의 9를 제쳐놓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 전체에게 필요한 공동의 나침반과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의 세계화가 오려면, 미디어나 문화산업이 그런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지 보편적 문화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화는 운송 수단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시장자유주의라는 현상을 통해 각 나라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없게 만들었으며, 이는 곧 막강한 자본의 힘에 의해 일방적인 전통문화의 침식이라는 결과를 생성해갔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 산업’, 다시 말해 문화를 생산하고 상품화하고 전파하는 산업 활동의 결과이다. 아무리 문화의 세계화가 보편화한다 하더라도 ㉠ 실제로 특수한 지역의 고유 문화는 변질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여기서 도출된다. 그래서 문화는 일정 사회 집단의 동일성을 위한 행동, 언어, 문화의 집합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몸과 정신에 스며든 것으로서의 전통성을 가지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미디어나 문화산업이 이윤 추구와 시장 확대라는 탐욕스러운 자본의 논리일 뿐이지 실제 문화 자체를 이야기하지 못하며, 인류 공동의 나침반과 기준 제공이라는 진정한 보편적인 문화 세우기와는 다르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문화는 문화의 상품화를 통해 강자 중심의 일방적인 폭주의 징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산업의 강자가 되어 세계 시장에 나서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의미 안에 민족적 정체성이나 지역적 특수성이 본질로 함유되어 있더라도, 문화가 산업의 형식으로 유통되고 재생산된다는 점이 재차 강조되어야 하는 까닭 역시 여기에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우리는 정보 통신 기술을 포함한 문화 강국으로 그 행보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제시문 (나)

우리는 대체로 머리끝에서 발밑까지를 서양식으로 꾸미고 있다. “목은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른다.”고 하던 구한말의 비분강개를 잊은 지 오래다. 외양뿐 아니라, 우리가 신봉하는 종교, 우리가 따르는 사상, 우리가 즐기는 예술, 이 모든 것이 대체로 서양적인 것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이 또한 예외가 아니다. 피와 뼈와 살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들인 것들인 양 싶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편협한 배타주의나 국수주의로 오인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보수적이라는 멍에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

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이라는 것과의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고정불변의 신비로운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기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전통을 찾아내고 창조한다고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훌륭한 문화적 전통의 소산으로 생각되던 것이 후대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 예도 또한 허다하다. 한편, 과거에는 돌보아지지 않던 것이 후대에 높이 평가되는 일도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가 현재 민족 문화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모두가 그러한 것이다. 신라의 향가, 고려의 가요, 조선시대의 사설시조, 백자, 풍속화 같은 것이 다 그러한 것이다.

한편,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과정에서 이 점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만일, 세종이 보수주의적 유학자들에게 한글 창제의 뜻을 굽혔던들, 우리 민족문화의 최대 걸작품이 햇빛을 못 보고 말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 학대에서 나오는 편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것이 국수주의나 배타주의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왕성한 창조적 정신은 선진 문화의 섭취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가 단순한 과거의 모방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단순한 외래문화의 모방도 아닐 것임은 스스로 명백한 일이다. ㉠ 외래문화도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비로소 민족 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낼 수가 있는 것이다.

제시문 (다)

정보사회의 태양이 지고 있다. 우리가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의 요구에 완전히 적응하기도 전에 말이다. 인류는 수렵꾼으로 살았고, 농부로 살았으며, 공장에서도 일했다. 그리고 지금은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사회에서 살고 있다. 바로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다. 합리적인 서구 사회는 변화를 중시하는 시대정신과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 덕에 범세계적인 물질 경쟁에서 승리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난과 질병을 상대로 한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부강한 나라들은 군사력에서도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은 정보 기술의 장악이 군사력 우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논리에 바탕을 둔 새로운 시장 쟁탈전이 시작된 것이다. 미래의 전쟁은 아이디어와 가치관을 내용으로 하는, 국경을 넘어선 '콘텐츠 전쟁'이 될 것이다. 이제 정보 독점은 끝이 났다. 인터넷에는 경계가 없다. 가치관, 이데올로기적 기초 등을 적에게 팔 수 있는 문화가 승리할 것이다. 미래의 전쟁은 정신력의 전투로 인식될 것이며, 사상자는 없을 것이다. 뛰어난 이야기를 가진 전사(戰士)가 세계와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신체의 전쟁이 아닌 문화와 이야기의 전쟁이 미래 드림 소사이어티의 전쟁이다. 앞으로 우리는 여가 시간에 모든 종류의 '이야기하기(storytelling)'를 살 것이다. 가족들

이 함께 있다는 단란함을 확산시켜주는 여가 시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이야기들을 나눌 것이다. 테마 레스토랑에서 영감 어린 중동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남극의 위대한 이야기를 만끽할 수도 있으리라. 그 현장이 감정을 발산하는 것이 전부인 록 콘서트나 스포츠 행사장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감성 조깅’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진지할 필요 없이 감성을 연습시켜 갈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는 일과 여가 시간 사이의 구분이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가 시간에 바라는 것과 일에서 요구하는 것이 같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1. 문제 풀이	
공통된 화제를 중심으로 제시문 [가]와 [나]를 요약하고, 밑줄 친 ㉠과 ㉡의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제시문 [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옹호하거나 비판하시오. (1,000자, 100점)	
1) 논제이해	
①	[가]와 [나]의 공통논제를 밝히시오.
②	공통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거로서 [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시오.
③	공통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거로서 [나]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시오.
④	밑줄 친 ㉠에 대해 현실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⑤	밑줄 친 ㉡에 대해 현실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시오.
⑥	[다]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밝히시오.
⑦	구체적 사례들으로써 [다]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시오.
2) 제시문 독해 (요약 및 비교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	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
	문화의 세계화는 지구 차원에서 일어나는 문화 상품의 흐름 을 전제로 한다. 인류 전체에게 필요한 공동의 나침반과 기준 을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의 세계화 가 오려면, 미디어나 문화산업이 그런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지 보편적 문화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화는 운송 수단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시장자유주의라는 현상을 통해 각 나라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없게 만들었으며, 이는 곧 막강한 자본의 힘에 의해 일방적인 전통문화의 침식이라는 결과를 생성해갔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 산업’, 다시 말해 문화를 생산하고 상품화하고 전파하는 산업 활동의 결과이다. 아무리 문화의 세계화가 보편화한다 하더라도 ㉠ 실제로 특수한 지역의 고유문화는 변질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여기서 도출된다. 그래서 문화는 일정 사회 집단의 동일성을 위한 행동, 언어, 문화의 집합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몸과 정신에 스며든 것으로서의 전통성을 가지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미디어나 문화산업이 이윤 추구와 시장 확대라는 탐욕스러운 자본의 논리일 뿐이지 실제 문화 자체를 이야기하지 못하며, 인류 공동의 나침반과 기준 제공이라는 진정하고 보편적인 문화 세우기와는 다르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문화는 문화의 상품화를 통해 강자 중심의 일방적인 폭주의 징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 산업의 강자가 되어 세계 시장에 나서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의미 안에 민족적 정체성이나 지역적 특수성이 본질로 함유되어 있더라도, 문화가 산업의 형식으로 유통되고 재생산된다는 점이 재차 강조되어야 하는 까닭 역시 여기에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우리는 정보 통신 기술을 포함한 문화 강국으로 그 행보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p>[가]는 ‘문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세계화에 대한 부정성을 포함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역설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문화 세계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윤추구를 위한 미디어나 문화산업이 문화 전파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 문화를 세울 수 있는 문화 그 자체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문화산업에 의한 일 방향적 문화전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세계화에 의한 문화전파는 초국적 기업에 의한 문화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우리도 문화산업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문화산업에 기반을 둔 세계화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p>
<p>(나)</p>	<p>제시문 내용</p> <p>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편협한 배타주의나 국수주의로 오인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보수적이라는 멍에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p> <p>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이라는 것과의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고정불변의 신비로운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기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전통을 찾아내고 창조한다고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훌륭한 문화적 전통의 소산으로 생각되던 것이 후대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 예도 또한 허다하다. 한편, 과거에는 돌보아지지 않던 것이 후대에 높이 평가되는 일도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가 현재 민족 문화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모두가 그러한 것이다. 신라의 향가, 고려의 가요, 조선시대의 사설시조, 백자, 풍속화 같은 것이 다 그러한 것이다.</p> <p>한편,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과정에서 이 점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만일, 세종이 보수주의적 유학자들에게 한글 창제의 뜻을 굽혔던들, 우리 민족문화의 최대 걸작품이 햇빛을 못 보고 말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 확대에서 나오는 편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p> <p>다만,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가 단순한 과거의 묵수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단순한 외래문화의 모방도 아닐 것임은 스스로 명백한 일이다. ㉠ <u>외래문화도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비로소 민족 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낼 수가 있는 것이다.</u></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나] 또한 ‘문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민족문화의 묵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 후 전통의 개념을 통해 민족 문화의 묵</p>

	<p>수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전통을 과거로부터 이어진 것 중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인습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은 항상 각 시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시대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은 인습에 대한 투쟁의 결과물이므로 혁신성을 간직하고 있기에 전통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무시하는 것은 자기 학대에서 나오는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p>
	<p>제시문 내용</p> <p>정보사회의 태양이 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논리에 바탕을 둔 새로운 시장 쟁탈전이 시작된 것이다. 미래의 전쟁은 아이디어와 가치관을 내용으로 하는, 국경을 넘어선 ‘콘텐츠 전쟁’이 될 것이다. 이제 정보 독점은 끝이 났다. 인터넷에는 경계가 없다. 가치관, 이데올로기적 기초 등을 적에게 팔 수 있는 문화가 승리할 것이다. 미래의 전쟁은 정신력의 전투로 인식될 것이며, 사상자는 없을 것이다. 뛰어난 이야기를 가진 전사(戰士)가 세계와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신체의 전쟁이 아닌 문화와 이야기의 전쟁이 미래 드림 소사이어티의 전쟁이다.</p> <p>앞으로 우리는 여가 시간에 모든 종류의 ‘이야기하기(storytelling)’를 살 것이다.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단란함을 확산시켜주는 여가 시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이야기들을 나눌 것이다. 테마 레스토랑에서 영감 어린 중동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남극의 위대한 이야기를 만끽할 수도 있으리라. 그 현장이 감정을 발산하는 것이 전부인 록 콘서트나 스포츠 행사장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감성 조깅’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진지할 필요 없이 감성을 연습시켜 갈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는 일과 여가 시간 사이의 구분이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가 시간에 바라는 것과 일에서 요구하는 것이 같아질 것이기 때문이다.</p>
(다)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다]는 미래 세계를 초국가적 문화 세계로 파악합니다. [다]는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의 독점이 사라지고 있기에 정보사회의 태양이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콘텐츠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콘텐츠는 아이디어와 가치관을 내용으로 하며 정신적이며 세련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는 한 국가나 지역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세계가 재탄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p>
3) 공통논제 밝히기	
	<p>[가]는 ‘문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세계화에 대한 부정성을 포함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역설.</p>
문화	<p>[나] 또한 ‘문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나]는 민족문화의 목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 후 전통의 개념을 통해 민족 문화의 목수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음.</p>
4) 구체적 사례로써 설명	

고유성	㉠ 실제로 특수한 지역의 고유문화는 변질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견해
	-> 문화산업에 의한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수성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필요.
	복싱, 레슬링의 산업화에도 변질되거나 파괴되지 않은 우리의 유구한 전통무예인 태권도.
보편성	㉡ 외래문화도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
	-> 전통과 외래문화가 섞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사례.
	우리의 전통음식인 비빔밥과 외래음식인 햄버거를 융합하여 만든 비빔밥버거.
5) 답안 작성	
1문단	[가]와 [나]는 모두 ‘문화’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가]는 세계화의 부정성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서술하고 있고, [나]는 민족문화를 묵수하는 것의 부정성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정당성을 서술하고 있다.
2문단	[가]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문화산업에 의한 일 방향적 문화전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면서도 사실상 세계화에 의한 문화전파는 초국적 기업에 의한 문화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우리도 문화산업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문화산업에 기반을 둔 세계화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3문단	[나]는 전통을 과거로부터 이어진 것 중 계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인습과 구별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은 항상 각 시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시대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은 인습에 대한 투쟁의 결과물이므로 혁신성을 간직하고 있기에 전통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무시하는 것은 자기 학대에서 나오는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4문단	㉠은 [가]의 관점이라면 비판의 견해로 [나]의 관점이라면 옹호의 견해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로는 복싱, 레슬링의 산업화에도 변질되거나 파괴되지 않은 우리의 유구한 전통무예인 태권도를 들 수 있다.
5문단	㉡은 [가]의 관점이라면 옹호의 견해로 [나]의 관점이라면 비판의 견해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로는 우리의 전통음식인 비빔밥과 외래음식인 햄버거를 융합하여 만든 비빔밥버거를 들 수 있다.
6문단	[다]는 미래 세계를 한 국가나 지역의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세계가 재탄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는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의 독점이 사라지고 있기에 정보사회의 태양이 지고 있다고 말하며, 다음 세대는 콘텐츠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 콘텐츠는 아이디어와 가치관을 내용으로 하며 정신적이며 세련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7문단	[가]와 ㉡의 예로써 [다]를 옹호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현재 지구촌을 바라봤을 때 현재 지구촌은 웹으로 한 데 묶여있고,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기에 그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콘텐츠’화 하지 못한다면 초국적 문화사회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 문제 해설 및 출제 의도	

본 논술은 세 개의 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 [가]는 세계화의 부정성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논지로 하고 있는 내용이다. 피에르 바르니에의 『문화의 세계화』(한울, 2014)에서 가져온 것이다. 제시문 [나]는 민족문화를 묵수하는 것의 부정성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정당성을 논지로 하고 있는 내용이다. 국어 교과서에 실린 이기백의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천재교육, 2013)에서 발췌한 글이다. 제시문 [다]는 랄프 엔센의 『드림 소사이어티』(리드리드출판, 2005)에서 가져왔다. 이 글은 앞으로의 미래 세계를 초국가적 문화 세계로 보고 있다. 제시문 [다]의 논지는 제시문 [가]와는 상통하지만 제시문 [나]와는 상반하는 틀을 갖는다.

문화는 모든 인간이 일상에서 접하는 사회현상이다. 그렇지만 논자에 따라서 매우 극단적인 방식으로 인지되고 수용되는 쟁점의 영역이다. 본 논술은 수험생이 이러한 문화의 이분법적 견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건에 따라 정확하게 서술하였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두 종류의 문화에 대한 관점이 들어난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묻는 독해력 측정. 둘째, 자신의 관점을 확립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된 글을 옹호 내지 반박하였는가를 묻는 설득표현력 측정. 셋째,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는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예시를 제시하면서 적절하게 설명했는가를 묻는 논리창의력 측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의 지적 수준도 고려될 것이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신간 인문교양서를 발췌 요약하여 활용했다. 제시문 [나]는 현행 고등학교 과정의 다수의 교과서에 수록된 글이다. 제시문 [다]는 랄프 엔센의 글의 일부인데, 미래 세계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고 쉬운 어휘로 기술하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통해서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이바지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도 감안했다. 수험생이 문화의 세계화와 특수화, 보편성과 특수성, 획일성과 다양성의 문화적 인식에 균형이 있는지, 이해와 표현 능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상반된 논리에서 관점을 잡고 논술에서 묻는 조건이나 견해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예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목적이다.

- 7) 평가의 내용**
- 1) [가]와 [나]의 공통 화제를 중심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요약하는 독해력.
 - 2) ㉠과 ㉡에 대한 견해에 대해 구체적 근거와 예시를 보이는 논리력.
 - 3) [가]와 [나]의 논지에서 하나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옹호/비판하는 표현력
 - 4) 이해와 지식과 의견을 효율적으로 엮어내는 구성력

8)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논리와 표현	정확한 단어 선택과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성 등을 평가한다.	10%
내용 이해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p>[가]와 [나]의 공통 화제를 중심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화제가 ‘문화’임을 적시하고 요약하면서 두 관점을 비교 ○ [가]는 세계화의 부정성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논지 ○ [나]는 민족문화를 묵수하는 것의 부정성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정당성을 논지 	25%

	㉠과 ㉡에 대한 견해에 대해 구체적 근거와 예시를 보임	○ ㉠은 [가]의 관점이라면 비판의 견해로 [나]의 관점이라면 옹호의 견해로 적절한 근거와 예시를 제시 ○ ㉡은 [가]의 관점이라면 옹호의 견해로 [나]의 관점이라면 비판의 견해로 적절한 근거와 예시를 제시	25%
	[가]와 [나]의 논지에서 하나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옹호/비판	○ [다]는 미래 세계를 초국가적 문화 세계로 보고 있다는 점을 밝혔는지 ○ [가]나 [나]의 관점으로 [다]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잘 드러냈는지	30%
구성과 전개	세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여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서술하는 일련의 과정이 자연스럽고 구성이 유기적인가를 평가한다.		10%

9) -1 우수답안 1

제시문 (가)와 (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문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먼저, 제시문 (가)를 보면 사회가 세계화되면서 자유로운 유통과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품의 이동이 문화전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목적적 측면에서 이익 산출을 추구하는 상품과 인류에게 올바른 생활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적 강대국이 세계의 흐름을 이끌어감으로 상품을 통한 문화 전파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시문 (나)는 인습과 전통을 구분하고 문화를 계승하는 것이 정치적, 문화적으로 발전을 도모함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새로운 문화 창조에 밑바탕이 되고 과거에 알지 못했던 전통의 가치를 일깨워 준다는 입장이다. ㄱ은 외래문화 수용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문화의 고유성을 설명하고 있고 예시로는 '티베트의 조장 풍습'을 들 수 있다. 조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가치관 변동으로 윤리적 문제와 시각적 측면에서 잔인하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으나 지역의 토양 특성과 전통적 관례에 따라 변질되지 않은 고유문화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ㄴ은 외래문화가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반 한다는 입장으로 문화 융합을 예로 든 우리나라의 고유 음식인 불고기와 서양 음식인 피자를 결합한 '불고기 피자'를 설명할 수 있다. 강한 마늘향과 양념의 차이로 쉽게 접할 수 없는 서양인들에게 서양의 문화를 결합한 음식은 우리나라를 알리고 건강상의 이점이라는데 이바지하는 장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시문 (다)를 비판할 수 있다. ㄴ의 새로운 문화 창조라는 장점은 인정하나 ㄱ이 사회의 비판에도 계승되어 온 고유의 문화를 고수한 것으로 보아 시대의 변화에도 사라지지 않는 전통문화가 존속함을 도출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자유에 따라 콘텐츠 전쟁이 도래함은 새로운 문화 창조가 아닌 특정한 국가의 문화를 옹호하고 국가 간의 우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약육강식에 따라 약자의 문화는 펼치지 못하고 강자의 문화 안에 포함되고 말 것이다.

9) -2 우수답안 2

제시문 (가)와 (나)에서는 모두 문화의 세계화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시문 (가)에서는 현재 문화의 세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문화의 상품화와 이윤추구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문화적 세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 상황에서 인류 공동체에게 필요한 세계화 방법을 제시한다.

세계인들에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화의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민족성 정체성과 특수성을 함유하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문화 강국이 되어 산업의 형식으로 문화를 재생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나)는 세계화 속 민족 문화의 전통의 계승을 중요하게 여긴다. 현재 문화의 세계화는 서양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문화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는 창조적 정신으로 선진문화와 외래 문화를 배타적인 태도가 아닌 수용하는 자세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야함을 주장한다.

제시문 (다)에서는 정보사회가 막을 내리고 아이디어사회가 도래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정보 기술의 장악력과 정보 독점이 아닌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정신력의 전투로 표현하며 우리들의 감성을 연습시키는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미래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ㄱ)의 예시인 문화적 세계화가 보편화됨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같은 원주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ㄴ)의 예인 중국으로부터의 한자 전래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이두라는 표기법을 발견해 내 우리 삶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이 미래에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새로운 가치관이 자문화와 결합되어 세계를 주도하느냐가 미래에 벌어질 '콘텐츠 전쟁'에서의 승자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정보화 사회보다 더 빠르고 쉽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9) -3 우수답안 3

제시문 (가)는 문화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장벽이 없어서 타국의 문화가 유입되더라도 자국의 전통 문화는 변질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고 서술한다. 이는 타국의 문화는 그것 자체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산업'의 형태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즉, '문화 산업'에 힘쓰는 것은 이윤 추구가 목적일 뿐이지 자국의 문화를 강요하며 타국의 문화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국은 '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 '문화 산업'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서술한다.

이와달리 제시문 (나)는 문화 세계화로 인해 우리 전통이 잊혀질 수 있으므로 전통을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즉, 높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을 찾아내어 그것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서술한다. 이때 외래문화는 우리의 전통을 계승해 창조적인 민족 문화를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한편 ㄱ의 사례로 우리나라의 '젓가락 문화'를 들 수 있다. 문화의 세계화로 우리나라에도 서양식 '포크'로 음식을 먹는 문화가 생겼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젓가락'의 사용은 어린시절부터 학습된 전통이므로 샐러드를 젓가락으로 집어 먹는 등 여전히 그 문화가 변질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또한 ㄴ의 사례는 '퓨전 국악'이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국악에 서양식 악곡과 악기가 합쳐져 우리나라와 서양의 느낌이 혼재하는 새로운 음악 장르가 만들어진 것이다. 즉, 서양식 외래문화가 '퓨전 국악'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이바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 세계화로 인해 문화를 거래하는 '드림 소사이어티'가 도래한다는 제시문 (다)를 옹호할 수 있다. 우선 '젓가락 문화'에서 알 수 있듯 문화를 거래한다고 해서 전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드림 소사이어티'는 정당성을 지닌다. 또한 '퓨전 국악'에서 드러나듯 문화 수용을 통해 문화가 창조 및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드림 소사이어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The 논술	2015 한양대 인문 오전
--------	----------------

[문제]	<p>다음은 추사 김정희의 작품 「세한도(歲寒圖)」이다. (가)를 참고하여 (나)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세한도」의 의미를 해석한 다음, (나)와 같은 관점의 문제점을 (다)를 바탕으로 지적하고, (다)와 같은 관점에서 「세한도」의 '집'을 중심으로 자신이 감상한 바를 간략하게 서술하시오.</p>
------	---

제시문 (가)



지난해엔 『만학(晩學)』과 『대운(大雲)』 두 책을 보내오고 올해에는 또 『우경문편(藕耕文編)』을 보내주니 이 책들은 모두 세상에 늘 있는 것이 아니로다. 천만 리 먼 북경에서 사왔고 여러 해에 걸쳐서 얻은 것이니 일시에 가능했던 일도 아니다. 지금 세상의 물결은 온통 권세와 이익만을 좇는데 이런 일에 것처럼 마음과 힘을 쏟았으니 이는 권세와 이익을 좇지 않음이다. 외려 세상 사람들이 잇속을 좇듯 바다 밖 초췌한 사람에게 마음을 준 것이다. 사마천이 이르기를, 권세와 이익으로 만난 이들은 권세와 이익이 다하면 사귀이 멀어진다고 하였다. 그대 또한 도도한 세상 물결 중의 한 사람이거늘 그러한 잇속 밖으로 벗어났으니, 권세와 이익으로 나를 대하지 않는 것인가, 사마천의 말이 틀린 것인가! 공자께서는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알게 된다.” 라고 하셨다. 송백(松柏)은 추워지기 전이나 뒤나 똑같은 송백이건만, 성인께서 특별히 ‘날씨가 추워진 뒤’를 힘주어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가 나를 대함은 예전이라고 더 잘한 게 없고 뒤라고 더 소홀히 한 것도 없으니, 예전의 그대야 일컬을 게 없지만 이후의 그대는 성인에게서 칭찬받을 만하지 않은가! 성인께서 특별히 일컬으심은 그저 뒤늦게 시드는 정절과 지조 때문만은 아닐지니, 또한 날씨가 추워진 때에 느껴 일어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아, 풍속이 순후했던 전한(前漢) 시대 급암(汲黯)과 정당시(鄭當時)처럼 어진 사람도 빈객이 그들의 형편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곤 했다. 그래도 하규(下邳)의 적공(翟公)이 때문에 써 붙인 말 [* 주 :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을 때,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유할 때, 한 사람은 신분이 높고 한 사람은 신분이 낮을 때, 그 사귀의 정과 태도를 볼 수 있다.] 은 박절하기가 그지없다. 슬프다, 완당 노인은 쓰노라.

[도움말]

「세한도」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5년째 유배 생활을 하던 1844년, 자신을 대하는

제자 이상적의 한결같은 마음에 감격하여 그에게 그려 보낸 작품이다. 추사는 그림 원편에 따로 공간을 마련하여 「세한도」의 창작 경위를 위와 같이 적었다. 당시 추사의 나이는 59세였다.

제시문 (나)

도상학(iconography)이라는 용어는 두 개의 그리스 단어, ‘이미지’를 뜻하는 ‘에이콘(eikon)’과 ‘기록하기’를 뜻하는 ‘그라페(graphe)’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어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지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미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도상학이다. 이를 위해 도상학자들은 예술 작품에 나타난 정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단계에서 출발해, 관습적 의미를 중시하여 문헌 자료와 지식을 통해 작품의



주제나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국가, 시대, 종교, 철학적 신조 등을 파악하여 작품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요컨대 도상학자들에게 회화 작품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읽어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이를 위해 도상학자들은 문화적 코드를 정확하게 독해하여 작가의 의도를 복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1305년에 제작된 조토의 프레스코화 「성탄」을 보자. 헛간에서 한 여자가 천으로 싼 어린애를 어머니에게 넘겨주고 있으며, 그 앞에는 나이 든 남자가 즐고 있고, 주변에 황소와 당나귀, 흰 양 여섯 마리와 검은 염소 한 마리가 있다. 그런데 관습적으로 보면 이 그림은 『성경』을 토대로 한 작품으로서 그림 속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앞의 남자는 요셉, 헛간은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한 마구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해산을 마친 마리아는 깨어 있는데 요셉은 앉아서 즐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실제 아버지는 신이지 요셉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르면 속세의 아버지인 요셉을 성탄이라는 상징적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제시문 (다)

“이 구두라는 도구의 밖으로 드러난 내부의 어두운 틈으로부터 들일을 하러 나선 이의 고통이 응시하고 있으며, 구두라는 도구의 실직한 무게 가운데는 거친 바람이 부는 넓게 펼쳐진 평탄한 밭고랑을 천천히 걷는 강인함이 쌓여 있고, 구두 가죽 위에는 대지의 습기와 풍요함이 깃들여 있다. (……) 이 구두라는 도구에 스며들어 있는 것은 빵의 확보



를 위한 불평 없는 근심과 다시 고난을 극복한 뒤의 말없는 기쁨과 임박한 아기의 출산에 대한 전전긍긍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의 전율이다. 이 구두라는 도구는 대지에 속해 있으며, 촌 아낙네의 세계 가운데서 보존되고 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구두」에 대한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글이다. 그에 따르면 예술은 예술가의 주관성의 표현이 아니다. 예술의 본질은 좀더 깊은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림이란 다른 무엇이기 이전에 우선물감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림은 이런 ‘사물적 차원을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것’이며,

이 ‘다른 어떤 것’이 바로 예술의 본질을 이룬다. 하이데거에게 중요했던 것은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작품 그 자체가 말하게 하는 것, 곧 구두로 하여금 말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흐의 그림은 구두라는 도구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열어 보여준다. 그 결과 구두에 대한 관습적인 생각 속에 감추어져 있던 구두라는 존재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하이데거의 견해에 따르면 예술의 진리란 근대 미학에서 말하는 재현으로서의 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재현의 진리는 묘사 대상이 되는 존재자와의 일치, 곧 모방의 진리를 뜻한다. 하지만 작품 속에 정립되는 진리는 은폐된 진리를 드러내는 개시의 진리인 것이다. 작품을 현실 속 대상의 모방으로 바라보고, 그 대상을 작가 관련 맥락 속에 귀속시키고, 나아가 작가의 자의식의 표현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근대 미학의 특징이며 하이데거가 무너뜨리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다.

1. 문제 풀이	
다음은 추사 김정희의 작품 「세한도(歲寒圖)」이다. (가)를 참고하여 (나)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세한도」의 의미를 해석한 다음, (나)와 같은 관점의 문제점을 (다)를 바탕으로 지적하고, (다)와 같은 관점에서 「세한도」의 '집'을 중심으로 자신이 감상한 바를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1) 논제이해	
①	(나)에서 제시된 방법이 무엇인가를 밝히시오.
②	(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시오.
③	(나)에서 제시된 방법과 (가)의 내용을 참고하여 '세한도'의 의미를 해석하시오.
④	(다)의 내용을 밝히시오.
⑤	(다)를 통해 (나)의 관점을 비판하시오.
⑥	(다)의 관점을 통해 '세한도'를 해석하되 '집'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시오.
2) 제시문 독해 (요약 및 비교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	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
	사마천이 이르기를, 권세와 이익으로 만난 이들은 권세와 이익이 다하면 사귀어 멀어진다고 하였다. 그대 또한 도도한 세상 물결 중의 한 사람이거늘 그러한 잇속 밖으로 벗어났으니, 권세와 이익으로 나를 대하지 않는 것인가, 사마천의 말이 틀린 것인가! 공자께서는 “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알게 된다. ”라고 하셨다. 송백(松柏)은 추워지기 전이나 뒤나 똑같은 송백이건만, 성인께서 특별히 ‘날씨가 추워진 뒤’를 힘주어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가 나를 대함은 예전이라고 더 잘한 게 없고 뒤라고 더 소홀히 한 것도 없으니, 예전의 그대야 일컬을 게 없지만 이후의 그대는 성인에게서 칭찬받을 만하지 않은가!
	[도움말] 「세한도」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5년째 유배 생활을 하던 1844년, 자신을 대하는 제자 이상적의 한결같은 마음에 감격하여 그에게 그려 보낸 작품이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김정희는 사마천과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제자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도움말에 나온 김정희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정희는 유배 이전에는 권세와 명망이 높아 누구나 다 자신에게 잘 보이려했기에 유배 이전에 제자가 자신을 챙기던 일은 칭찬받을 것이 없지만, 유배 이후에 권세와 명망이 없어졌어도 제자가 자신을 일관되게 챙기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합니다.
(나)	제시문 내용 이미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도상학이다. 이를 위해 도

	<p>상학자들은 예술 작품에 나타난 정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단계에서 출발해, 관습적 의미를 중시하여 문헌 자료와 지식을 통해 작품의 주제나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국가, 시대, 종교, 철학적 신조 등을 파악하여 작품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요컨대 도상학자들에게 회화 작품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읽어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이를 위해 도상학자들은 문화적 코드를 정확하게 독해하여 작가의 의도를 복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나)는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의 하나인 도상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가의 의도와 사회적 맥락을 토대로 그림을 읽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가)의 제한도를 해석하려면 김정희의 편지내용과 소나무와 잣나무가 조선사회에서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p>
(다)	<p>제시문 내용</p>
	<p>하이데거에게 중요했던 것은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작품 그 자체가 말하게 하는 것, 곧 구두로 하여금 말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희의 그림은 구두라는 도구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열어 보여준다. 그 결과 구두에 대한 관습적인 생각 속에 감추어져 있던 구두라는 존재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하이데거의 견해에 따르면 예술의 진리란 근대 미학에서 말하는 재현으로서의 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재현의 진리는 묘사 대상이 되는 존재자와의 일치, 곧 모방의 진리를 뜻한다. 하지만 작품 속에 정립되는 진리는 은폐된 진리를 드러내는 개시의 진리인 것이다. 작품을 현실 속 대상의 모방으로 바라보고, 그 대상을 작가 관련 맥락 속에 귀속시키고, 나아가 작가의 자의식의 표현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근대 미학의 특징이며 하이데거가 무너뜨리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하이데거는 작가 및 재현에 집중하는 근대 미학을 비판하며 그림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작가 및 재현이 아니라 작품 그 자체의 본질입니다. 이는 주관성의 재현을 거부하며 작품의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작가의 주관적 의도를 복원하는데 초점을 두는 도상학적 해석방법과 대조됩니다.</p>
<p>3) 개요 작성</p>	
1문단	<p>(나)에서 제시된 방법이 무엇인가를 밝히시오.</p>
	<p>-> 도상학적 해석 방법 - 작가의 주관적 의도의 복원</p>
	<p>(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시오.</p>
	<p>-> 유배로 인해 자신의 권세가 예전 같지 않음에도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을 대해주는 제자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냄</p>
	<p>(나)에서 제시된 방법과 (가)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한도’의 의미를 해석하시오.</p>

	-> 조선 사회에서 소나무와 잣나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 - 절개, 지조의 상징
2문단	(다)의 내용을 밝히시오.
	-> 하이데거 : 작가와 재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작품의 본질을 바라보자
	(다)를 통해 (나)의 관점을 비판하시오.
	-> 주관적 의도를 복원하려는 것에만 집중하면 작품이 그 자체로 가지는 본질적 가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3문단	(다)의 관점을 통해 '세한도'를 해석하되 '집'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시오.
	-> 그림만을 통해 '집'이 작품 내에서 가지는 본질적 의미에 대해 서술
4) 답안 작성	
1문단	(나)는 사회적 맥락을 통해 작품을 해석하여 작가의 의도를 읽어내려는 도상학적 해석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러한 도상학적 해석 방법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재현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을 통해 (가)의 그림을 해석하려면 작가의 처지를 고려해야 하고 겨울, 소나무가 조선사회에서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작가는 유배로 인해 권세가 낮아진 자신에게 변함없이 잘 대해주는 제자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겨울은 시련을 소나무는 절개 또는 지조를 상징한다. 이를 토대로 그림을 해석하자면 작가는 유배지에 갇힌 상황을 겨울로 표현하고 변함없이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제자의 의리를 소나무의 절개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문단	(다)의 하이데거는 작가의 의도를 복원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작품 그 자체의 본질적 가치를 호도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작품 해석에 있어서 작품의 본질을 탐구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작가의 의도를 복원하려는 시도는 그림 내의 소재인 집, 나무가 가지는 작품 내에서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는데 방해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3문단	(다)의 관점에서 세한도를 해석하자면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한 가운데 나무로 둘러 쌓인 집은 고독감과 단절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굴뚝도 없고, 문도 열려있지 않은 집은 체념과 구속감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작품에 나와 있지 않은 인물은 집 속에서 한기가 서린 겨울을 보내며 자신의 인격적 수양을 위해 힘쓰고 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5) 문제 해설 및 출제 의도	
문제는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째, (가)를 바탕으로 (나)에서 제시한 도상해석학의 단계에 따라 보기의 「세한도」를 해석하라는 것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텍스트로부터 정보를 정확히 찾아내는 사실적 이해와 분석력이 필요하며, 이를 다시 다른 텍스트와 회화 작품에 적용하는 추론 및 창의 능력이 요구된다. 둘째, (나)와 (다)의 관점을 비	

교하라는 것이다. (나)는 재현의 관점에서 작가의 의도를 복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는 현시의 관점에서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수험생들에게 이러한 비판적 사고가 있는지 측정하고자 하는 동시에 수험생들의 답안지가 한편의 글로 완성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글쓰기의 절차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셋째, (다)의 사례를 참조하여 「세한도」의 ‘집’을 중심으로 자신이 느낀 바를 자유롭게 써 보라는 것이다. 이는 둘째 질문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것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잘 반영하면 자연스럽게 한편의 글이 완성될 수 있으므로 글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험생들의 답안에서 첫째와 둘째 단락은 문제에서 요구한 세 단계와 달리 다음처럼 내용 중심으로 재편되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세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고 그 중 (나)와 (다) 두 지문의 내용을 비교한 다음, (가)의 언어 정보(문학 작품)를 토대로 (나)의 그림 해석 사례를 인용하여 「세한도」의 의미를 해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논리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올바른 답안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 (다)의 세 지문은 현시의 모두 「세한도」의 이해 및 해석과 관련된다. (가) 지문과 <도움말>에는 추사가 이 그림을 그린 시기와 이유, 목적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파악하고 (나) 지문의 방법과 단계를 이해하면, 그림의 기본 구도, 겨울과 송백(松柏)과 집의 관계와 의미, 그리고 늙은 소나무의 독특한 형상 등을 해석할 수 있다. (다) 지문에는 현대 예술 비평의 방법과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수험생은 그림 속의 ‘집’이 스스로 말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굴뚝 없는 집의 한기, 창문 없는 집이 자아내는 구속감, 마당 없는 집의 강박증, 화면에 없는 집주인의 존재, 길과 이웃이 없는 집의 단절감, 둥근 (창)문의 총만감 등등. 수험생의 발견 정도에 따라 단순한 그림은 훨씬 역동적이고 입체적이며 풍요로운 의미를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보기로 제시한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국보 180호)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그림으로, 『문학 1』비상교과서, 179쪽에 실려 있다. (가) 지문은 추사가 「세한도」여백에 적은 「세한도제발」이다.(위 책 180쪽에 일부 수록) 이 글에는 「세한도」해석의 중요한 단서들이 담겨져 있다. (나) 지문은 EBS 수능연계교재(수능완성 국어 B형 실전편, 135쪽)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 지문의 설명은 근대 이전 한국 회화 읽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 지문은 EBS 수능연계교재(수능완성 국어 B형 유형편, 74쪽)의 내용을 문제에 맞게 간추린 것이다. 지문 내 인용문은 『예술작품의 근원에 대하여』하이데거/오병남 외 옮김, 경문사, 1990, 99쪽에서 가져왔다. 이 글은 작가 및 재현 여부에 얽매이지 않는 현대 예술 비평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인간의 사유는 여러 차원에서 작동하는데, 텍스트는 물론 삶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들을 종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 문제는 그러한 종합적 사유 능력의 측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러 차원의 사유를 효율적으로 종합한 다음에 필요한 것은 창의 능력이다. 그것은 주어진 정보나 지식의 이용에 그치지 않고, 사물은 물론이고 사물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6)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구성과 전개	세 제시문을 이해 비교하고, 그림을 해석 비평하는 일련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는가를 평가한다.	10%

내용 이해와 분석	(가)와 (나) 지문의 이해를 토대로 한 『세한도』에 대한 적절한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한도』의 기본 구도에 대한 설명 ○ 겨울과 송백의 문화적 코드 설명 ○ 작가의 처지와 창작 목적을 고려한 그림의 의미 해석 	30%
	(나)와 (다) 지문 내용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비교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상학의 장점에 대한 설명 ○ 하이데거 예술 비평의 특징에 대한 설명 ○ 도상학의 한계에 대한 설명 	30%
	『세한도』의 ‘집’이 스스로 말하는 의미의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기, 고독감, 구속감, 강박증, 단절감, 총만감, 체념, 인격적 성숙감 등등 	20%
논리와 표현	정확한 단어 선택과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성 등을 평가한다.		10%

7)-1 우수답안 1

추사 김정희의 작품 ‘세한도’를 보면 허허벌판에 가지가 앙상한 나무 다섯 그루가 덩그러니 놓여있고, 그 나무들 사이에 장식이 없고 크지 않은 집 한 채가 있다. ‘세한도’는 <가>에 따르면 추사 김정희와 권세와 이익으로 만난 제자 이상적이 김정희가 유배 생활을 5년째 하는 동안에도 그를 한결 같이 대해 그 마음에 감격하여 김정희가 이상적에게 보낸 그림이다. 이를 참고하여 세한도를 바라보면 허허벌판의 놓여 있는 집과 나무들은 김정희의 유배지로 이해할 수 있다. 김정희는 자신의 유배지를 그리기 위해 배경을 그려 넣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5년의 유배 생활동안 자신의 권세와 이익이 다하여 타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관점에서 예술작품을 바라보는 것은 <다>의 하이데거에 의하면 옳지 못하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예술은 예술가의 주관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그 그림 속 세계의 사물의 관습적 의미를 뛰어넘어 참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이 그림을 단순히 현실세계의 모방으로 인식하고 관습적인 시각으로 그 그림 속 세계를 이해하며, 작품 밖 세계의 종교, 시대, 작가의 상황과 같은 요소로 그 그림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다>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의 하이데거가 추구하는 관점에서 ‘세한도’를 감상해볼 수 있다. 세한도에서 허허벌판 한 가운데에 놓여있는 집은 지붕의 형태, 외벽의 재질과 같은 세부적인 묘사가 생략된 채 그려져 있다. 하지만 집 바깥에 있는 나무는 나무의 가지, 질감 등이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세한도의 집은 창문이 있지 않고 집 정면에 있는 동그란 문마저 반쯤 닫혀 있다. 세한도의 집은 이를 통해 바라볼 때 집의 관습적 의미인 안식처가 아닌 바깥세상으로부터 거주자를 격리시키는 감옥이라는 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집의 거주자는 바깥 세상에 관심이 많고 집 밖으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집에 스며들어 있는 감금의 이미지를 부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변을 허허벌판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통해 그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고 있다.

7)-2 우수답안 2

문제에 제시된 <세한도>는 집 한 채와 네 그루의 솔을 그린 그림이다. 작가인 추사 김정희의 생애와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이해했을 때, 작고 낮은 집은 추사 김정희를, 추운 겨울을 배경으로 작품을 위 아래로 가로질러 곳곳이 서있는 솔들은 그의 제자 이상적을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유배 중이었던 김정희는 자신의 달라진 사회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태도를 보여준 제자 이상적에게 이러한 그림과 (가)의 글을 적어 보내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술 작품을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처지 등을 고려해 내재되어 있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을 도상학적 관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예술을 작가의 가치관을 거쳐서 해석하기보단, 예술 작품 그 자체에 존재하는 본질을 알아야함을 강조하였다. 도상학적 관점에 따라 작품을 분석하면 그 속의 소재의 관습적인 의미와 작가의 주관적인 의미부여가 소재자체의 참된 본질보다 우선되어 예술작품이 가진 그 자체의 가치가 가려질 수 있다. 예술 작품 속의 대상이 직접 말해주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관습적인 해석만을 덧씌우는 것이다. 덧씌워진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을 들어내 그 안의 본질적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문제의 <세한도>로 돌아가 보자. 그림에는 여전히 작고 낮은 집 한 채와 그것을 둘러싼 네 그루의 솔이 그려져 있다. 주변에 집이라곤 오직 이 작은 집 뿐이고, 주변에 그 외의 인가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더군다나 창문도 없이 작고 둥근 문만을 가진 이 집의 집주인은 무척이나 고립된 사람일 것이다. 또한 이 작고 낮은 집을 미루어보아 소박한 품성을 지녔을 것이다. 이 외롭고 소박하기 그지없는 집을 둘러싼 네 그루의 솔은 그림 속 유일한 생명이다. 하얀 배경과 장식 없이 소소한 집을 배경으로 하여 그 생생함이 보다 더 돋보이는 듯하다. 가장자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백으로 그림 속의 적막함과 외로움을 더 강조하는 동시에 솔들의 생명력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3 우수답안 3

제시문 (나)는 도상학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도상학을 통한 이미지 해석의 첫 번째 단계는 작품의 표면적 정보를 기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관습적 의미를 중점적으로 자료나 지식을 통해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국가, 시대, 종교, 철학적 신조 등을 반영하여 작품에 내재된 본질적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세한도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면적으로는 나무 네 그루와 집 한 채가 나타나 있다. 두 번째로 (가)에 제시된 소나무와 잣나무의 관습적 의미, 즉 한결같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세한도에 나타난 나무가 소나무와 잣나무이며 한결같음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에 나타난 추사의 한결같음을 중시하는 철학적 신조의 파악을 통해 제자의 유배 전과 유배 후의 한결같은 태도에 감격하는 의미를 내포함을 알 수 있다.

(다)의 하이데거는 이러한 해석 방식을 비판한다. 작품 감상에 있어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작품 그 자체의 의미라는 것이다. 또한 작품을 현실의 관습적 의미에서 파악하고 작가의 의도를 반영해서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나)의 도상학은 관습적 의미와 작가의 상황과 철학적 신조 등을 반영하는 감상법이라는 점에서 비판 받아야 한다.

이러한 (다)의 관점에서 세한도를 감상하면, 첫 번째로 집에 출입구를 제외한 다음 창문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집이 외부의 세상과 단절된 곳임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집의 문이 열려있지만 사람이 나타나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소통을 원하지만 다가오는 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집이 가로는 좁고 세로는 긴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밥을 짓는 연기 등의 생활의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깊숙이 들어가 세상과 단절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그림에 나타난 집은 세상과의 소통을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소통이 두려워 타인이 다가와주길 기다리며 깊숙이 숨어 있는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집이 도피처와 동시에 소통의 매개체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The 논술	2015 한양대 인문 오후
--------	----------------

[문제]	(가)에서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서술한 다음, (나)와 (다)를 활용하여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와 (다)를 바탕으로 그가 더욱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제안하시오.
------	--

제시문 (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제시문 (나)

1990년대 초, 심리학자 카너먼과 의사 레델마이어는 대장내시경 체험 연구를 통해 어떤 방식의 검사가 환자들이 고통을 덜 느끼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들은 피험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A 집단에게는 고통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14분 정도에서 정점을 찍은 다음 서서히 줄어드는 방식으로 28분 동안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B 집단에게는 고통이 처음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8분 정도에 정점을 찍고 곧바로 끝나는 방식으로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 그리고 양 쪽 모두 피험자들은 매1분마다 그 순간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0(전혀 고통 없음)에서 10(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움)까지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험이 끝난 후 피험자들은 내시경을 받는 동안 겪었던 전반적인 고통의 정도를 보고하도록 했다. 실험 결과, 피험자들은 두 집단 모두 정점에서 느낀 고통의 강도는 비슷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느낀 전반적인 고통의 정도는 B 집단이 A 집단보다 크게 보고되었다. 이는 내시경 검사 진행 과정에서 매 1분마다 피험자가 보고한 고통의 정도를 모두 합한 '총 고통량'을 비교한 것과 상치되는 결과이다. 즉 고통 경험을 기억하고 평가할 때, 피험자들은 고통의 지속 시간보다 고통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에 더 초점을 두어 고통을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카너먼은 경험 자아와 기억 자아의 구별을 도입했다. 경험 자아는 이 실험에서 매 1분마다 “지

금 아픈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자아이고, 기억 자아는 실험 후 “전반적으로 어땠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자아이다. 경험 자아는 28분 동안 지속된 내시경 검사에서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하는 것과 달리, 기억 자아는 8분 동안 지속된 검사가 더 고통스러웠다고 기억하는 것이다. 경험 자체와 경험에 대한 기억 사이의 혼동은 우리 누구나 갖고 있는 강력한 인지적 착각이다. 우리는 지금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평범한 펜션에서 즐겁게 지낸 휴가보다 바가지요금에 소매치기까지 당했던 한여름 성수기의 로마 여행을 더 멋진 여행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런 판단을 하게 하는 주체가 바로 기억 자아이다. 이 경우 경험 자아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기억 자아는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 점수를 매기고, 의미를 부여하고,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매 순간을 중시하는 경험 자아라면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경험 자아의 관점에서 인생의 모든 순간은 그것이 기억할 가치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된다. 경험 자아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경험하는 행복감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이 기억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 시절 바이올린을 연습하며 보냈던 한 시간은 이후의 삶에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감상하는 수많은 순간이 더욱 행복한 경험이 되도록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시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자아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령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기억 자아와 경험 자아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경험 자아가 매 순간 느끼는 행복감과 우리가 그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얻는 기억 자아의 행복 판단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

무슨 일이든 회피하고 두려워하며 어떤 자리도 지켜 내지 못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된다. 반면 무슨 일이든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 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즐거움에 탐닉하면서 어떤 것도 삼가지 않는 사람은 무절제한 사람이 된다. 반면 즐거움이라면 전부 회피하는 사람은 일종의 목석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절제와 용기는 지나침과 모자람에 의해 파괴되고 중용에 의해 보존된다. 그렇다면 세 가지 성향이 있는 셈인데, 그 중 둘은 악덕으로, 하나는 지나침에 따른 악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자람에 따른 악덕이다. 나머지 하나가 중용이라는 탁월성의 성향이다. 이 세 성향은 모두 각기 다른 모든 성향에 대해 대립적이다. 용감한 사람은 비겁한 사람에 비해서는 무모해 보이고 무모한 사람에 비해서는 비겁해 보인다. 마찬가지로 절제 있는 사람은 목석같은 사람에 비해서는 무절제한 사람으로 보이고 무절제한 사람에 비해서는 목석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모자람의 성향이 지나침의 성향보다 탁월성에 더 많이 대립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역으로 지나침의 성향이 모자람의 성향보다 탁월성에 더 많이 대립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용기에 더 대립하는 것은 지나침인 무모함이 아니라 모자람인 비겁이며, 절제에 더 많이 대립하는 것은 모자람인 목석같은 사람이 아니라 지나침인 무절제이다. 중용을 실천하는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화를 내는 일, 돈을 주거나 써버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람에게, 마땅한 만큼, 마땅한 때에, 마땅한 목적을 위해, 그리고 마땅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며, 쉬운 일도 아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이런 일을 잘하는 것은 드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며, 고귀한 일이다. 그런데 탁월성을 낳고 성장하게 하는 기원들이나 원인들은 탁월성을 파

괴하는 기원들이나 원인들과 동일하다. 그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탁월성의 활동 역시 동일한 기원들이나 원인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용기와 절제와 같은 탁월성은 그 탁월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에 의해 길러질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더 분명한 경우에도, 가령 체력과 같은 경우에도 맞는 말이다. 체력은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많은 운동을 건디는 일에서부터 생겨나며, 이런 일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체력이 강한 사람이다. 탁월성의 경우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우리는 먼저 즐거움을 삼가는 일을 통해 절제 있는 사람이 되며, 절제 있는 사람이 되면 즐거움을 삼가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문제 풀이	
(가)에서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서술한 다음, (나)와 (다)를 활용하여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와 (다)를 바탕으로 그가 더욱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제안하시오.	
1) 논제이해	
①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삶의 여정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밝히시오.
②	(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시오.
③	(다)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시오.
④	(나)를 바탕으로 (가)의 화자가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제안하시오.
⑤	(다)를 바탕으로 (가)의 화자가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제안하시오.
2) 제시문 독해 (요약 및 비교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	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가)의 화자는 자신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식과 질투 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부산했던 삶에 대해 큰 회의를 느끼며 단 한 번도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단하건데, 화자는 자신의 삶이 너무 불행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제시문 내용 경험 자아는 이 실험에서 매 1분마다 “지금 아픈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자아이고, 기억 자아는 실험 후 “전반적으로 어땠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자아이다.

	<p>경험 자아는 28분 동안 지속된 내시경 검사에서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하는 것과 달리, 기억 자아는 8분 동안 지속된 검사가 더 고통스러웠다고 기억하는 것이다. 경험 자체와 경험에 대한 기억 사이의 혼동은 우리 누구나 갖고 있는 강력한 인지적 착각이다.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런 판단을 하게 하는 주체가 바로 기억 자아이다. 이 경우 경험 자아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기억 자아는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 점수를 매기고, 의미를 부여하고,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매 순간을 증시하는 경험 자아라면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경험 자아의 관점에서 인생의 모든 순간은 그것이 기억할 가치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취급된다. 경험 자아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경험하는 행복감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이 기억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 시절 바이올린을 연습하며 보냈던 한 시간은 이후의 삶에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감상하는 수많은 순간이 더욱 행복한 경험이 되도록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시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자아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령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기억 자아와 경험 자아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경험 자아가 매 순간 느끼는 행복감과 우리가 그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얻는 기억 자아의 행복 판단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나)는 경험 자아와 기억 자아의 두 가지 자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험자아란 매 순간 행복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자아이고, 기억 자아란 경험의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자아입니다. 그런데, 두 자아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경험 자아나 기억 자아 중 하나의 자아로만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감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둘 모두를 고려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행복을 평가해야 한다고 합니다.</p>
<p>(다)</p>	<p>제시문 내용</p> <p>무슨 일이든 회피하고 두려워하며 어떤 자리도 지켜 내지 못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된다. 반면 무슨 일이든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절제와 용기는 지나침과 모자람에 의해 파괴되고 중용에 의해 보존된다. 그렇다면 세 가지 성향이 있는 셈인데, 그 중 둘은 악덕으로, 하나는 지나침에 따른 악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자람에 따른 악덕이다. 나머지 하나가 중용이라는 탁월성의 성향이다.</p> <p>중용을 실천하는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화를 내는 일, 돈을 주거나 써버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람에게, 마땅한 만큼, 마땅한 때에, 마땅한 목적을 위해, 그리고 마땅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며, 쉬운 일도 아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이런 일을 잘하는 것은 드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며, 고귀한 일이다.</p> <p>용기와 절제와 같은 탁월성은 그 탁월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에 의해 길러질 수 있다. 탁월성의 경우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우리는 먼저 즐거움을 삼가는 일</p>

	을 통해 절제 있는 사람이 되며, 절제 있는 사람이 되면 즐거움을 삼가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다)는 중용이라는 탁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중용은 알맞은 장소에서 알맞은 시간에 알맞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이지만, 둘의 산술적 평균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에서 적절한 지점을 찾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용기나 절제와 같은 인격적 탁월성은 이러한 현명한 판단을 연습하는 과정, 즉 중용을 찾는 연습 과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3) 개요 작성	
1문단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삶의 여정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밝히시오. -> 탄식, 질투 - 삶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태도를 드러냄.
2문단	(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시오. -> 경험 자아 - 순간마다 느끼는 행복감과 관련된 자아, 기억 자아 - 경험의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자아, 경험 자아와 기억 자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에 둘의 조화가 필요함.
3문단	(다)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시오. ->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인 중용, 중용은 산술적 평균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알맞음'을 의미함. 이러한 중용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사이의 알맞음을 찾으려는 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음.
4문단	(나)를 바탕으로 (가)의 화자가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제안하시오. -> 화자는 기억 자아에만 의존하여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평가방식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에 경험 자아와의 조화가 중요함.
5문단	(다)를 바탕으로 (가)의 화자가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제안하시오. -> 화자는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침의 덕목에 해당함. 따라서 지나침과 모자람의 사이인 중용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4) 답안 작성	
1문단	(가)의 화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본 후 탄식과 질투만이 남아있었다고 평가하며 자신의 삶이 부신했다고 말한다.
2문단	(나)는 경험 자아와 기억 자아 두 개의 자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전자는 매 순간의 행복감과 관련된 것이고, 후자는 경험을 판단하고 그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처럼 두 자아의 성격이 다르기에 두 자아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적절한 행복감을 느끼며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경험 자아와 기억 자아 모두를 조화롭게

	고려하여야 한다.
3문단	(다)는 ‘알맞음’을 의미하는 중용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의 탁월성을 의미하기에 산술적 평균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러한 중용은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의 알맞음을 찾으려는 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4문단	(나)를 바탕으로 (가)의 화자의 태도를 평가해보자면, (가)의 화자는 지나치게 기억 자아에만 의존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자도 경험 자아가 존재하기에 지나온 삶의 순간에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나)에 의할 때 (가)의 화자에게 기억 자아에만 의존하여 자신의 부정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말고, 경험 자아까지 고려하여 매 순간이 행복으로 채워져 있음을 느끼도록 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5문단	(다)를 바탕으로 (가)의 화자의 태도를 평가해보자면, (가)의 화자는 지나침을 보이기 좋은 삶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상황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하고 적절한 중용을 연습하고 실천하면 행복한 삶에 이를 수 있는데, 화자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에 의할 때 (가)의 화자에게 과거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어떻게 알맞음, 즉 중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5) 문제 해설 및 출제 의도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행복한지에 대한 물음은 인류 지성사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탐구대상이었다. 특히, 최근 행복에 대한 실험 심리학 연구는 우리가 단순하게 ‘행복’이라 지칭하는 개념이 실은 적어도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복합 개념임을 밝혀냈다.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느끼는 행복감과 자신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내리게 되는 행복 판단은 서로 다른 인지 과정에 기반하며, 우리는 행복에 대한 ‘느낌’과 ‘판단’을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인문계 논술(2) 문제는 이 주제에 대해 서로 결이 다른 세 지문, 즉 시, 설명문, 고전을 활용하여 구성되었다. 세 지문은 모두 EBS 국어영역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첫 지문 (가)는 자신의 부산했던 삶을 돌아보는 내용을 담은 기형도의 시, 「질투는 나의 힘」으로 <수능완성 국어영역(A형) 유형편> 99쪽에 수록되어 있다. 지문 (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카너먼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수능완성 국어영역(B형) 실전편> 84쪽에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다) 지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중용을 설명한 부분을 발췌한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문이 <N제 국어영역(B형)> 69쪽에 수록되어 있다.

문제는 (가) 시의 화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회고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공감하여 서술하게 한 다음, (나)에서 소개된 ‘경험 자아’와 ‘기억 자아’의 차이점과 (다)에서 소개된 ‘중용’ 개념을 활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가)의 화자가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택해야 할 삶의 태도를 제안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시의 화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공감하여 서술하게 함으로써 공감적 상상력과 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고, (나)와 (다)에 제시된 내용에서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행복에 대한 생각을 읽어내도록 요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가) 화자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지문 이해력, 분석력, 적용

<p>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 시의 화자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권유할 것인지 제안해 보도록 요구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다.</p>			
<p>6)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p>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구성과 전개	(가) 화자의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 분석 → (나)에서 '경험 자아'와 기억 자아'의 차이점을 구별해 내고 (다)에서 중용의 정확한 의미를 읽어 내어 이를 설명 → (나)와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가) 화자가 더욱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제시	10%	
내용 이해와 분석	(가) 지문 내용 파악의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는 자신의 삶이 부산하기만 했다고 평가 	20%
	(나), (다) 지문에 근거한 비판적 분석	<p><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 자아'는 매 순간 느끼는 행복감에 관련 • '기억 자아'는 경험의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하며 의미를 부여 • 두 자아는 서로 충돌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자아의 판단을 전적으로 옳다고 하기 어려움. •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생각은 시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의 '기억 자아'의 회고에 근거하고 있음. • 하지만 화자는 '경험 자아'의 측면에서 꽤 행복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음. <p><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용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이지만, 둘의 산술적 평균이 아님. • 그렇기에 중용을 실천하기 위해선 는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에서 적절한 지점을 찾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함. • 용기나 절제와 같은 인격적 탁월성은 이러한 현명한 판단을 연습하는 과정, 즉 중용을 찾는 연습 과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화자의 삶에 대한 평가도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아니라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찾아가려는 중용을 통해 보다 올바른 판단에 도달할 수 있음. 	40%
	(가) 화자를 위한 삶의 태도 제시	<p><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는 사후적 의미 부여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행복만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다 균형잡힌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함. <p><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상황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하고 적절한 중용을 연습하고 실천하면 행복한 삶 	20%

		에 이를 수 있음.	
논리와 표현	설명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의 논리적 긴밀성		10%

7)-1 우수답안 1

제시문 (가)의 화자는 자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은 채로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향한 질투만을 품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시문 (나)에 따르면 이러한 그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고통의 지속을 기억하는 경험 자아와 고통의 종결상황을 기억하는 기억 자아 사이의 혼동은 우리 누구나 갖고 있는 인지적 착각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심리실험에서 드러나듯이 인간은 기억 자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의 화자 역시 경험 자아가 매 순간마다 느꼈던 행복은 완전히 배제한 채, 기억 자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시문 (다)에서는 인간의 세 가지 경향을 제시하며 중용에 의한 탁월성을 이야기한다. 인간은 지나침에 따른 악덕, 모자람에 따른 악덕, 중용이라는 성향을 갖는데 이 세 가지 성향은 제 각기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더 대립하기도 하고 덜 대립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비판한다. 인간의 성향을 적절히 조화시켜 탁월성에 도달하는 것은 아주 드물며,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임을 감안했을 때 (가)의 화자는 무조건적으로 비판만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가)의 화자가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억 자아와 경험 자아의 조화를 통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매 순간 경험하는 행복감과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질투로 가득찼던 지난 삶에서도 분명히 자신이 얻은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질투를 통해 감정의 절제력을 얻고 자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탁월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에 의해서도 행복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탁월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용기와 절제 같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나침과 모자람을 적절히 조화시켜 중용에 도달하기 위해 힘쓴다면 그 과정에서 (가)의 화자는 분명히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다.

7)-2 우수답안 2

제시문 (가)의 화자는 젊었을 때의 거침없는 도전과 지칠 줄 모르고 도전했었던 패기에 대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무모함으로 평가하고 그 동안 살아왔던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남들을 보며 따라가기 바빴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경험자체와 경험에 대한 기억의 대립을 경험자아와 기억자아의 구별로 설명하고 있다. 매 순간의 감정을 중요시 하는 경험자아와 경험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가치 판단을 내리는 기억자아의 이해관계로 인해 위와 같은 인지적 착각이 생긴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가)의 화자가 청춘 시절의 결정과 도전이 당시에는 최선의 판단으로 여겨졌지만 현재 회상하면 후회스런 경험으로 느끼는 것은 청춘의 경험, 그 순간에 있어서의 행복감을 중요시하지 않은 기억자아 위주의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너무 지나치거나 과한 것을 비판하고 중용의 탁월함을 강조한 것이 (다)의 내용이다. 또한 지나침, 모자름, 중용의 세 성향은 서로 대립적이며 용기와 절제와 같은 중용에 이르기 위한 노력에 의해 탁월성이 길러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가)의 화자가 젊은 시절의 생활에 대해서 진정 중요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못한 무모한 도전의 연속이었으며 이를 질투심에 빚댄 것도 중용의 관점에서 자신의 청춘을 비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용감한 사람은 비겁한 사람에 의해 무모해 보임을 생각했을 때, 청춘의 화자의 도전이 다소 무모해 보일지라도 그 또한 용감함을 나타낼 수 있음을 (가)의 화자는 생각하지 못했다.

(가)의 화자가 앞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살면서 겪게 되는 수 많은 경험들에서 경험을 할 때 그 자체에서 느끼게 되는 행복감에 대해 생각해보고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제시문 (다)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엇이든 지나치거나 과함을 피하고 중용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태도로 삶을 살아갈 때에 화자는 진정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을 위한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7)-3 우수답안 3

<가>의 화자는 사랑을 향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하였으나 정작 스스로를 아끼지 않았음을 후회한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삶의 회의를 느끼며 탄식한다. <나>는 실험을 통해 경험자아와 기억자아에 대해 말한다. 경험자아는 경험의 기억가치와 무관하게 매 순간의 행복감을 중시한다. 기억자아는 경험에 순위를 정하여 의미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가>의 화자를 보면 그는 기억자아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순간의 행복감이 경험자아는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과거의 자신이 노력하여 성취했을 행복은 잊고 기억으로만 판단하여 후회하는 것이다. <다>는 지나침과 모자람을 비판하고 중용을 주장한다. 각각 모든 성향에 대해 대립적인 세성향 중 중용의 탁월성을 이야기 하며 나머지 두 성향을 약덕이라 여긴다. 지나침과 모자람의 성향은 경우에 따라 탁월성에 더 많이 대립하는 정도가 다르다. 또한 중용을 적재적소에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하며 때문에 존경받을만한 일이라 말한다. 이를 통해 <가>의 화자를 보면 화자는 탁월성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중용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진정한 탁월성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가>의 화자를 보았을 때, 우선 <나>에서 말한 것과 같이 기억자아와 경험자아 사이에 괴리가 생기더라도 모두를 고려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과거의 자신이 사소하더라도 행복했던 경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정체성과 자신감을 얻어야 한다. 또한 <다>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탁월성을 생성하는 것의 기원과 파괴하는 것의 기원이 같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용기와 같은 진정한 탁월성에 도달하려 하고 자신을 탁월히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황에 맞는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현재 삶에 대한 허무함과 후회를 벗어던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경험자아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탁월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수반된다면 그가 더욱 행복하고 회한이 남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The 논술	2015 한양대 인문 모의 1차
--------	-------------------

[문제]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상황을 비판한 후, <가>와 <나>의 관점을 충족하는 미래 동물원의 조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	--

제시문 (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많이 소원해졌다. 맹수의 위협을 받는 일도 없어졌거니와 아름다운 새소리를 접하기도 어려워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날로 위생적으로 개선되어 가는 주거환경에서 쥐나 바퀴벌레 등도 점점 줄어든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의 동물을 실물보다 그림책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먼저 접한다. 그렇다면 저개발 국가의 경우는 어떨까 아프리카의 비극적인 상황을 증언하는 책 속에 유명한 일화가 실려 있다. 탄자니아의 한 초등학교에 갔을 때 함께 간 TV방송국 사람이 도화지와 크레용을 아이들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부탁했다. “애들아, 아무거나 좋으니까 동물 그림을 그려보렴.” 아이들은 처음으로 만져보는 흰 도화지가 신기한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한 시간쯤 후에 선생님께서 “다 그린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며 아이들을 자상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저마다 손에 도화지를 높이 들고 자기들이 그린 그림을 앞다퉈 보여주었다. 하지만 저자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동물을 그린 아이는 단 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 남자애는 도화지 한쪽 끝에 파리를 그렸다. 또 한 남자애는 아주 가느다란 두 다리를 지닌 새를 그렸다. 동물 그림이라고는 그것뿐이었다. 도대체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물동이나 밥그릇을 그렸다. 저자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라면 멋진 코끼리나 기린이나 얼룩말을 그릴 거야.” 그러나 아프리카에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몇몇 보호 구역에서만 동물을 볼 수 있다. 그런 곳 주위에서 살고 있는 아이라면 동물을 보거나 동물에 대해 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데도 아프리카 동물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동물원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그림책도 없기 때문이다.

제시문 (나)

대개 자기 소유가 아닌데도 이를 취하는 것을 도(盜)라 하고, 생명을 해치고 물건을 빼앗는 것을 적(賊)이라 한다. 너희들은 밤낮없이 돌아다니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라리며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심지어는 돈을 형님이라 부르고, 장수가 되려고 아내를 죽이기도 하니, 인륜의 도리를 다시 논할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다 다시 메뚜기에게서 밤을 가로채고 누에한테서는 옷을 빼앗으며 벌을 쫓아내어 꿀을 훔친다. 더 심한 놈은 개미 새끼로 젖을 담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그 잔인하고 야비한 행위가 네놈들보다 심한 이가 누가 있겠느냐 네놈들이 이(理)를 말하고 성(性)을 논할 때 특하면 하늘을 들먹이지만, 하늘이 명령한 바로써 본다면 범이든 사람이든 만물의 하나일 뿐이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기르는 어짐으로 논하자면 범과 메뚜기, 누에와 벌, 개미는 사람과 함께 길러지는 것이니 서로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 그 선악으로써 판별한다면 벌과 개미의 집을 공공연히 빼앗아가는 놈이야말로 천지의 큰 도둑이 아니겠느냐 메뚜기와 누에의 살림을 제 마음대로 훔쳐 가는 놈이야말로 인의

를 헤치는 큰 도적이 아니겠느냐.

제시문 (다)

우리는 대중 매체를 통해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언제든 볼 수 있다. 그리고 웬만한 대도시에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하나 이상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동하면 야생 동물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은 언제나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런 시각적 욕망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 동물원이다.

인간은 평생 동안 최소한 네 번 동물원에 간다는 말이 있다.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연인과의 데이트 코스로, 결혼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고 노후에 손자 손녀와 함께 간다는 것이다. 아득한 옛날 인간이 자연 속에서 동물들과 어우러져 살았던 시절의 무의식적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일까. 동물원에 가면 어른들도 나이를 잊고 어린아이의 마음이 된다. 또한 그곳은 언제나 정겹고 유쾌한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동물원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원은 무엇인가. 감금과 억압의 장소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동물원에서는 종별로 고유하게 지니고 있던 소생활권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통합하고 배치해 놓고 있다. 그 결과 자연에서라면 서로 접하지 못하는 동물들끼리 가까이에서 지내야 한다. 그리고 초원을 날아다니며 사냥해야 할 맹금류들이 낮설고 좁은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에 길들여지면서 야성을 잃어 간다.

이러한 상황은 동물들에게 스트레스, 자해, 비정상적인 행동, 비만, 성인병 등을 일으킨다. 그리고 열대 지역과 한대 지역 출신 동물들은 반대 계절을 맞을 때마다 고초를 겪는다. 게다가 철창, 시멘트, 유리 등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 자체가 반생명적이다. 바닥에 튀어나온 못에 발을 찢려 피를 흘리는 백곰, 겨울이면 실내에 감금되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고릴라, 관람객들이 주는 인스턴트 식품의 과다 섭취로 성인병에 걸리거나 비닐을 먹고 죽어 가는 침팬지 등 이러한 환경 때문에 희생되는 동물들의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하마가 물속에서 등만 보이고 나오지 않는다고 돌을 던지고, 악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막대기로 건드리거나 입속에 동전이나 페트병을 던지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관람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물들이 겪는 고생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겨울에 들짐승들을 가두어 두는 방의 바닥에는 흙이 아닌 미끌미끌한 타일이 깔려 있다. 물청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서 방 안에 들어오는 짐승들은 사뭇 불안한 몸짓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까 봐 그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자기 배설물의 냄새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신의 영토를 확인하는 감각적 지표가 말끔하게 지워진 공간에서는 본능적인 위기감이 엄습하는 모양이다. 자연히 동물들의 건강은 나빠지고 수명도 짧아진다. 당장의 편리함과 관리비 절감을 위한 디자인이 실제로는 그 비싼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여 결과적으로 관리 비용을 더 높이는 것이다.

1. 문제 풀이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상황을 비판한 후, <가>와 <나>의 관점을 충족하는 미래 동물원의 조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1) 논제이해	
①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②	<나>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③	<다>의 상황이 무엇인가를 밝히시오.
④	<가>를 바탕으로 <다>의 상황을 비판하시오.
⑤	<나>를 바탕으로 <다>의 상황을 비판하시오.
⑥	<가>의 관점을 충족하는 미래 동물원의 조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⑦	<나>의 관점을 충족하는 미래 동물원의 조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⑧	<다>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 동물원의 조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2) 제시문 독해 (요약 및 비교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	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많이 소원해졌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의 동물을 실물보다 그림책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먼저 접한다. “아프리카 아이들이라면 멋진 코끼리나 기린이나 얼룩말을 그릴 거야.” 그러나 아프리카에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몇몇 보호 구역에서만 동물을 볼 수 있다. 그런 곳 주위에서 살고 있는 아이라면 동물을 보거나 동물에 대해 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데도 아프리카 동물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동물원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그림책도 없기 때문이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가>에서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인간과 동물이 격리된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을 많이 접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조차 동물을 접할 수 없는 역설적, 비교육적 상황을 지적합니다.
<나>	제시문 내용
	하늘이 명령한 바로써 본다면 범이든 사람이든 만물의 하나일 뿐이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기르는 어짐으로 논하자면 범과 메뚜기, 누에와 벌, 개미는 사람과 함께 길러지는 것이니 서로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 그 선악으로써 판별한다면 벌과 개미의 집을 공공연히 빼앗아가는 놈이야말로 천지의 큰 도둑이 아니겠느냐 메뚜기와 누에의 살림을 제 마음대로 훔쳐 가는 놈이야말로 인의를 해치는 큰 도적이 아니겠느냐.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나>는 인간과 동물이 만물의 하나라고 주장하며 인간이 마음대로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도적질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동물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제시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p>
<다>	<p>제시문 내용</p> <p>그렇다면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원은 무엇인가. 감금과 억압의 장소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동물원에서는 종별로 고유하게 지니고 있던 소생활권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통합하고 배치해 놓고 있다. 그 결과 자연에서라면 서로 접하지 못하는 동물들끼리 가까이에서 지내야 한다. 그리고 초원을 날아다니며 사냥해야 할 맹금류들이 낮설고 좁은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에 길들여지면서 야성을 잃어 간다.</p> <p>이러한 상황은 동물들에게 스트레스, 자해, 비정상적인 행동, 비만, 성인병 등을 일으킨다.</p> <p>당장의 편리함과 관리비 절감을 위한 디자인이 실제로는 그 비싼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여 결과적으로 관리 비용을 더 높이는 것이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다>는 동물원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유쾌한 장소이지만 동물에게는 감금과 억압의 장소임을 지적합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 환경 때문에 동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러한 환경이 결과적으로 관리비를 더 높인다고 말합니다.</p>
	<p>3) 개요 작성</p>
1문단	<p><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p> <p>-> 동물과의 단절, 역설적, 비교육적</p>
	<p><나>의 내용을 요약하시오.</p> <p>-> 인간중심적 사고의 탈피</p>
2문단	<p><다>의 상황이 무엇인가를 밝히시오.</p> <p>-> 감금과 억압의 장소, 과도한 관리비용</p>
	<p><가>를 바탕으로 <다>의 상황을 비판하시오.</p> <p>-> 본질적 접근성 향상에 이르지 못함, 비교육적</p>
	<p><나>를 바탕으로 <다>의 상황을 비판하시오.</p> <p>-> 인간중심적 사고에 입각한 동물의 이용</p>
	<p><가>의 관점을 충족하는 미래 동물원의 조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p> <p>-> 본질적 접근성 향상, 교육적 요소의 가미</p>
3문단	<p><나>의 관점을 충족하는 미래 동물원의 조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p> <p>-> 동물의 생활권을 보호하며 존중</p>
	<p><다>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 동물원의 조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p>

	-> 관리비용의 절감
4) 답안 작성	
1문단	<가>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동물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야기되어 동물의 보고인 아프리카에서조차 아이들이 동물을 볼 수 없는 역설적 상황이 생겨났다고 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간접매체를 통해서도 동물을 볼 수 없는 비교육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나>는 인간중심적 사고에 입각하여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성이나 인위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하며 이를 도적질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인간과 동물은 공생적 관계에 있는데도 인간이 동물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2문단	<다>는 동물원이 인간에게는 유쾌한 장소일지 모르나, 동물의 입장에서는 감금의 장소라고 한다. 그러면서 감금을 위한 인위적 환경조성 때문에 재정적부담도 크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가>, <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할 수 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동물과 인간이 공생관계에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도적질이며, 동물원을 감금의 장소로 만드는 것은 동물로 하여금 야생성을 잃게 하여 진정한 의미의 교육의 장소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동물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더욱 심화시킨다.
3문단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미래 동물원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첫째, 동물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인간은 동물과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감금이 아닌 공생과 화합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야생성을 유지한 동물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동물과의 단절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설계된 동물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기존의 인간의 편의를 위한 동물원에서 발생했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5) 문제 해설 및 출제 의도	
<p>본 논술 문제는 <교과 과정>의 ‘환경과 동물’에 연계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인문 교양서적의 지문과 연암 박지원 문학작품인 『호질』 및 <교과서>에 수록된 지문으로 제시문을 구성하되, 각각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관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술한 후, 바람직한 미래 동물원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려는 목적에서 출제되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지문의 이해와 그에 따른 관점을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제시문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미래의 동물원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는 응용 능력과 창의 능력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p> <p>제시문 <가>는 구로야나기 데츠코가 지은 『토토의 눈물』(2002)에서 아프리카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을 요약 발췌하였고, 제시문 <나>는 연암 박지원의 『호질』에서 인용하였으며, 제시문 <다>는 교과서 『화법과 작문1』(천재교육)에 실린 동물원에 대한 지문을 원용하였다. 서로 다른 장르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의도로 출제된 셈이다. 본 논술 문제는 수험생들이 한국에게 잘 알려진 문학작품과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던지고 해결의 길을 제시한 비문학 지문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에 대한 합리적 관점을 세우고 미래 동물원의 조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응용 능력과 창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p>	

6)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전체 구성과 전개 순서	제시문 <가>와 <나>를 간략히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상황을 비판한 후에 <가>와 <나>의 관점에서 미래 동물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전개하였다.		20%
주제와 정보 내용 - 제시문의 내용 파악 - 문제 상황에 대한 제시문의 대응 방식 차이 인식	<가>에 드러난 내용의 관점 파악	가장 풍부한 야생동물의 보고인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 나라의 동물들을 구경하지 못한다는 비교육적인 상황을 지적하였다. 즉 산업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 속에서 인간과 동물이 격리되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15%
	<나>에 드러난 내용의 관점 파악	범이 복괘선생을 꾸짖는 대목으로 동물의 입장에서 독선적 인간중심주의의 폐단과 부조리를 지적하였다. 즉 인간의 동물에 대한 독선적 형태를 비판하고 동물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평등과 공존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15%
	<다>의 상황 비판	현대 사회의 동물원은 인간의 편의 시설(추억의 공간)이지만, 동물의 입장에서는 강금과 억압의 장소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즉 동물원의 동물은 인간에서 유익함도 주고 또 동물도 화려하게 치장 내지 취급받는 듯하지만, 스트레스, 자해 등, 혹은 동물의 생태에 벗어나는 공간 유지 등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고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비용도 더 든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20%
	미래 동물원의 조건 기술	<다>의 비판 상황을 <가>의 관점과 <나>의 관점에서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을 지적하였다. 즉 교육적, 오락적, 연구적 기능 등과 가급적 자연 환경을 제공하고 먹이사슬의 위협에서 보호하며, 희귀종족의 보존의 기능 등을 갖춘 미래 동물원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20%
논리와 표현	정확한 단어 선택과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성을 갖추었다.		10%

7)-1 우수답안 1

제시문 〈가〉는 문명의 발전에 따라 어린이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동물을 접할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의 생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동물에 의한 위협이 사라진 대신 동물에 대한 접근도 차단된 현실을 보여 준다. 한편 제시문 〈나〉는 전통 윤리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다름없는 만물의 하나로서 동물을 바라보고, 인류에 따른 동물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 동물원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면 사육되는 동물들의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제시문 〈다〉의 동물원은 현대 사회에서의 동물에 대한 거리적 접근성 향상이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충족시켰지만, 정작 동물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편익만을 위해 각기 다른 동물의 생활 양식과 특성을 무시하면서 반인륜적인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동물에 대한 접근성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사육된 동물들은 점차 야생의 동물과 괴리되면서 동물 본연의 모습 또한 잃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시문 〈다〉에 언급한 동물원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방식은 분명히 도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동물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실상을 알게 된다면 '정겹고 유쾌한 장소로서의 동물원은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결국 현재의 동물원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이익을 위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다소 어긋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동물원이 제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로 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성 향상을 들 수 있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살아 있는 동물을 직접 접할 수 있게 한다는 교육적 효과와, 모든 사람을 위한 특별한 경험 제공의 장소로서 동물원이 갖는 문화적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동물원 내 동물 삶의 질적 향상 또한 미래 동물원의 조건이다. 이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생명 존중의 원칙도 지킬 수 있을뿐더러 장기적으로 볼 때 동물 생활 환경 관리에 드는 비용 또한 절감하는 효과를 낳는다.

7)-2 우수답안 2

제시문 〈가〉에 의하면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동물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아이들은 동물을 실물이 아닌 매체를 통해서 주로 접하게 되며, 산업화와 도시화가 덜 진행된 저개발 국가에서도 소수의 보호 구역을 제외하면 매체의 미발달로 인해 아이들이 동물을 볼 기회가 없다. 제시문 〈나〉에 의하면 자연은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지 않고 만물의 하나로서 서로 어우러지며 사는 것을 추구하나 인간은 동물을 자신들의 소유라 여기며 동물로부터 그들의 것을 빼앗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다.

제시문 〈다〉는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물원이 인간에게는 즐겁고 따스한 추억의 공간일지 몰라도 동물들에게는 그들을 감금하고 억압함으로써 자유와 생활 습성을 파괴하고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공간이 된다는 상황을 제시한다. 제시문 〈가〉에 의하면 우리가 동물원에서 접하는 동물들은 고유의 야생성을 잃고 인간의 편익에 맞춰 길들여졌으므로 우리는 과도한 산업화로 인해 자연 그대로의 진짜 동물을 볼 기회를 박탈당한 채 가짜 동물을 보는 셈이다. 제시문 〈나〉에 의하면 동물들이 겪는 고통을 무시하고 오직 인간의 이기심만을 위해 만들어진 동물원은 동물을 일종의 상

품으로 취급하며 동물과 인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자연의 원리를 위배하므로 인의를 해치는 행동이다.

따라서 미래의 동물원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동물원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동물들을 실물로 볼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여야 하며 동물을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가 아닌 지구상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동등한 생명체로 인식해야 한다. 토양, 온도, 습도, 생태계 등 동물들 본래의 서식 환경을 최대한 그대로 재현하고 사람들은 동물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만든 통로를 통해 동물 사이를 지나다니며 감상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고 매체를 통한 동물이 아닌 살아 숨 쉬는 본연의 동물을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7)-3 우수답안 3

〈가〉에서는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 요즘 아이들이 동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게 된다고 말한다. 이와 달리 도시화나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저개발 국가에서는 동물을 직접 볼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실제로 동물들은 몇몇 보호구역에서만 볼 수 있다. 또, 저개발 국가들은 대중매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동물을 볼 기회가 없다.

〈나〉에서는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모두 만물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만물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므로 서로 조화롭게 지내야 한다고 말한다.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사람이 동물의 것을 빼앗는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사람이 동물의 것을 빼앗는 것은 야비하고 도적과 같은 짓이라고 말한다.

〈다〉에서는 현재 동물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동물원은 인간의 입장만 생각하는데 동물원의 주인은 동물이다.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원은 감금과 억압의 공간이다. 동물들은 억압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해도 하게 된다. 동물원은 동물들이 원래 살던 자연과 달리 물리적인 환경인데 이런 환경에 의해 동물들은 희생된다. 관광객의 태도도 심각하다. 동물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던지고 동물을 생명이 아닌 장난감처럼 여기고 있다. 동물 또한 우리와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관리자들은 편리함과 관리비 절감을 위해 동물들의 본능적 위기감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당장의 편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물의 입장을 존중해줘야 한다.

〈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의 동물원은 여러 지역에 분포해야하고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동물을 대중 매체가 아닌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의 동물원은 인간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동물들이 억압을 받고 감금 받는 동물원이 아닌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환경도 그 동물이 원래 살았던 곳과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또,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관광객에게는 제재를 해야 할 것이다.

The 논술	2015 한양대 인문 모의 2차
--------	-------------------

[문제]	<p><가>~<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한 다음, <가>~<다>를 모두 고려하여, “게임을 즐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 규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글”을 쓰시오.</p>
------	--

제시문 (가)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다. 또 내 말주변이 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느냐의 어려움도 아니며, 내가 과감하고 거리낌 없이 나의 뜻을 모두 다 펼쳐 보일 수 있느냐의 어려움도 아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설득하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 내가 말하려는 것을 그에게 맞출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있다. 설득하려는 상대가 높은 명예를 구하려는 사람인데 오히려 많은 이로움으로 설득하면, 비속하다고 여겨져 홀대 받으면서 반드시 멀리 쫓겨난다. 설득하려는 상대가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높은 명예로 설득하면, 생각이 없고 현실에 어두운 자로 여겨져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설득하려는 상대가 속으로는 이익을 좇지만 겉으로는 높은 명예를 따르는 척하는데 오히려 명예가 높아진다는 식으로 유세하면 상대는 겉으로는 그의 말을 받아들일지 모르나 마음으로는 항상 멀리할 것이며, 이로운 바를 들어 유세하면 속으로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도 겉으로는 그를 물리칠 것이다.

(중략)

용이라는 동물은 유순해 길들이면 탈 수 있다. 그러나 턱 밑에 한 자쯤 되는 거꾸로 난 비늘, 바로 역린(逆鱗)이 있는데, 만약 사람이 그 비늘을 건드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다. 군주에게도 역린이 있다. 유세하려는 자는 군주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어야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제시문 (나)

수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로 하는 설득의 성공이 다음의 세 가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설득의 성공은 첫째, 화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달려 있다. 가령, 그 말이 청중들로 하여금 화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설득은 쉽게 이루어진다. 확실한 판단이 불가능하고 의견들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러하다. 둘째, 설득의 성공은 청중들이 어떤 마음 상태가 되도록 유도하느냐에 달려 있다. 말이 청중들의 감정을 뒤흔들 때 설득은 일어난다. 우리가 즐겁거나 호의적일 때의 판단은 확실히 우리가 고통스럽거나 적대적일 때의 판단과 같지 않다. 하지만 설득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셋째, 말 자체가 제공하는 설득력에 달려 있다. 설득은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설득력 있는 논증을 통하여 진리를 증명할 때에 말 자체를 통하여 달성된다. 진리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없다. 설득의 성공이 화자의 특성에 달려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훌륭한 사람의 말이 더 설득력 있는가 그것은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것을, 즉 진리를 말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듣는 이의 마음은 무엇에 움직이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말은 많으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합리적인지, 무엇이 타당한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진리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논증이야말로 그 결론이 진리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

법이다. 따라서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진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설득이란 말하는 이의 성품과 관계하므로 윤리의 문제요, 듣는 이의 감정을 바꾸는 것과 관계 하므로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합리적이고 합당한 논증을 통하여 진리를 드러내는 것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논리의 문제요 변증의 문제라 할 것이다. 요컨대 논증이야말로 설득의 알맹이인 것이다.

제시문 (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연구해 온 학자들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같은 정도의 진실이 담긴 사실 정보라 하더라도, 이득을 강조하는 쪽보다 손실을 강조하는 편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수신자에게 위협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하여 설득하는 전략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것을 ‘위협 소구’라고 한다.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사고의 참혹한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는 공익광고나,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보험 광고 등은 모두 이러한 전략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협을 이용한 모든 설득 전략이 동일한 설득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아주 낮은 강도의 위협이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행동이 크게 변하지 않으며, 반대로 아주 높은 강도의 위협이 주어져도 오히려 경계심을 높여 설득 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따르면, 위협의 강도와 태도 변화 간의 관계는 곡선을 형성하게 된다. 너무 높은 수준이나 너무 낮은 수준의 위협은 약간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지만, 중간 수준의 위협은 상당히 큰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문제 풀이	
<가>~<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한 다음, <가>~<다>를 모두 고려하여, “게임을 즐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 규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글”을 쓰시오.	
1) 논제이해	
①	<가>, <나>, <다>를 직접 비교하고 (요약비교가 아님 - 한양대의 경우 비교하라는 문제에서 요약비교가 아닌 직접비교를 할 것을 요구), 그 과정에서 각각의 논지를 드러내시오. (삼자비교형이기에 1:2분리구성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②	(가)에서 나온 설득의 필수적 요소를 사용하여 “게임을 즐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 규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글”을 쓰시오
③	(나)에서 나온 설득의 필수적 요소를 사용하여 “게임을 즐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 규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글”을 쓰시오
④	(다)에서 나온 설득의 필수적 요소를 사용하여 “게임을 즐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 규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글”을 쓰시오
2) 제시문 독해 (요약 및 비교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	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설득하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 내가 말하려는 것을 그에게 맞출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있다. (중략) 용이라는 동물은 유순해 길들이면 탈 수 있다. 그러나 턱 밑에 한 자쯤 되는 거꾸로 난 비늘, 바로 역린(逆鱗)이 있는데, 만약 사람이 그 비늘을 건드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다. 군주에게도 역린이 있다. 유세하려는 자는 군주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어야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
	제시문 <가>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그에 맞추어 설득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설득이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납득 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다. 또 내 말주변이 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느냐의 어려움도 아니며, 내가 과감하고 거리낌 없이 나의 뜻을 모두 다 펼쳐 보일 수 있느냐의 어려움도 아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설득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 내가 말하려는 것을 그에게 맞출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역린’이라는 핵심키워드를 사용하여 자세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속마음, 즉 복심을 헤아려야 한다면서 그 복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여 상

	<p>대방의 ‘역린’을 건드린다면 설득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가 속으로는 이익을 좇지만 겉으로는 높은 명예를 따르는 척하는데 오히려 명예가 높아진다는 식으로 유세하면 상대는 겉으로는 그의 말을 받아들일지 모르나…….’, ‘군주에게도 역린이 있다. 유세하려는 자는 군주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어야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p> <p>그렇다면 <가>의 논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논증력, 변론술, 개성 등이 아니라 상대방의 복심을 잘 헤아려 거기에 내 주장을 맞추는 것이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역린을 건드린다면 설득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죽음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p> <p>그리고 글쓴이가 법가의 한비자라는 것을 볼 때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한비자가 춘추전국시대의 논객이기 때문에 그 설득의 대상이 군주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인 처세, 즉 입신양명의 수단으로써 설득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p>
<p><나></p>	<p>제시문 내용</p> <p>첫째, 화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달려 있다. 가령, 그 말이 청중들로 하여금 화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설득은 쉽게 이루어진다.</p> <p>둘째, 설득의 성공은 청중들이 어떤 마음 상태가 되도록 유도하느냐에 달려 있다. 말이 청중들의 감정을 뒤흔들 때 설득은 일어난다.</p> <p>하지만 설득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셋째, 말 자체가 제공하는 설득력에 달려 있다. 설득은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설득력 있는 논증을 통하여 진리를 증명할 때에 말 자체를 통하여 달성된다. 진리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설득이란 말하는 이의 성품과 관계하므로 윤리의 문제요, 듣는 이의 감정을 바꾸는 것과 관계 하므로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합리적이고 합당한 논증을 통하여 진리를 드러내는 것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논리의 문제요 변증의 문제라 할 것이다. 요컨대 논증이야말로 설득의 알맹이인 것이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다음으로 <나>의 논지를 파악해 볼 차례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설득함에 있어서 3가지를 신경써야한다고 합니다.</p> <p>위 내용을 토대로 그 세 가지는 화자의 개성, 감정적 호소력, 논증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계속 글을 이어나가면서 세 번째 조건인 논증력이 사람을 설득하는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화자의 개성과 감정적 호소력도 본질적으로는 논증력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합니다.</p> <p>‘진리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없다.’</p>

	<p>그렇다면 이상을 토대로 <나>의 논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p> <p>->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화자에게 신뢰성, 감정호소력, 논증력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논증력이다. 신뢰성과 감정호소력도 결국 논증력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리적 판단을 통해 밝혀진 진리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p> <p><나>는 <가>와 비교했을 때 조금 이상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전적 명제인 진리는 언제나 통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p>
<다>	<p>제시문 내용</p> <p>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연구해 온 학자들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같은 정도의 진실이 담긴 사실 정보라 하더라도, 이득을 강조하는 쪽보다 손실을 강조하는 편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한다.</p> <p>그런데 위협을 이용한 모든 설득 전략이 동일한 설득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아주 낮은 강도의 위협이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행동이 크게 변하지 않으며, 반대로 아주 높은 강도의 위협이 주어져도 오히려 경계심을 높여 설득 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따르면, 위협의 강도와 태도 변화 간의 관계는 곡선을 형성하게 된다. 너무 높은 수준이나 너무 낮은 수준의 위협은 약간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지만, 중간 수준의 위협은 상당히 큰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마지막으로 <다>의 논지를 파악할 차례입니다. <다>는 이익보다는 위협을 강조하며, 이 때 위협이 적절한 수준의 것이어야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가>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적정성을 유지 못한 위협은 오히려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p> <p>이를 통해 <다>의 논지를 정리해봅시다.</p> <p>->설득에 있어서는 이익보다는 손해를 강조하는 위협소구 방식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때에도 그 위협의 정도가 적정성을 유지해야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p>
3) 개요 작성	
1문단	<p><가>, <나>, <다>를 직접 비교하고 (요약비교가 아님 - 한양대의 경우 비교하라는 문제에서 요약비교가 아닌 직접비교를 할 것을 요구), 그 과정에서 각각의 논지를 드러내시오. (삼자비교형이기에 1:2분리구성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p> <p>먼저 <가>와 <나>를 비교해봅시다. 먼저, 둘 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글인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공통점은 논외로 합시다. <가>는 상대방의 복심을 헤아려야 하고 이 때 역린을 건드리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의 주장이며 군주를 설득하는데 이러한 설득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므로 처세술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나>는 논증을 통해 무결한 진리를 얻고 그 진리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려</p>

	<p>하고 있으니 <가>에 비해 이상적인 주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p> <p>다음으로 <가>와 <다>를 비교해봅시다. 역린을 건드리는 행위와 위협소구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복심을 헤아려 적정 수준의 위협을 가한다면 오히려 설득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협소구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위협소구의 대상이 상대방의 진정으로 바라는 것과 동떨어진 것일 경우 ‘역린’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p> <p>마지막으로 <나>와 <다>를 비교해봅시다. <나>는 올바른 설득을 위하여 화자의 개성, 상대방에 대한 감정호소력, 치밀한 논증력을 조건으로 제시하는데 반하여 <다>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다>의 위협소구는 <나>의 두 번째 조건인 감정호소력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논리적 판단을 통한 진리의 전달은 외견상 <다>의 위협소구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협소구가 꼭 대중의 심리상태를 조작하는 성격의 설득 기술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협소구가 진리, 즉 실존하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할 때에는 진리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p>
<p>2문단</p>	<p>(가)에서 나온 설득의 필수적 요소를 사용하여 “게임을 즐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 규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글”을 쓰시오</p> <p>(나)에서 나온 설득의 필수적 요소를 사용하여 “게임을 즐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 규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글”을 쓰시오</p> <p>(다)에서 나온 설득의 필수적 요소를 사용하여 “게임을 즐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 규제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글”을 쓰시오</p> <p><가>-상대방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상대방(고등학생)을 고려해 설득할 것.</p> <p><나>-치밀한 논증으로서 설득력을 담보할 것.</p> <p><다>-상대방에게 적절한 수준의 위협을 가하여 행동으로 옮기도록 설득할 것.</p>
<p>4) 답안 작성</p>	
<p>1문단</p>	<p>제시문들은 모두 효과적 설득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나>는 화자를 <가>, <다>는 청자를 중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나>는 논증을 통한 진리의 발견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진리는 상대방을 감화시키고, 자신의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다소 이상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가>는 현실적 처세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복심에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여 설득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가>는 상대방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맞춰야한다고 하고, <다>는 중간수준의 위협으로 상대방을 자신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다>에서 중간수준이 위협이 필요한 이유는 ‘역린’을 건드리지 않기 위함이다. 일견 <다>가 감정만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와 대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근거의 진리성이 필요하기에 <나>와 공통되는 부분도 있다.</p>
<p>2문단</p>	<p>게임은 공부로 인해 지쳐있는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해하다. 첫째, 학업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 게임 제</p>

작 회사들은 소비자를 더 끌어오기 위해 점점 더 중독성이 높은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런 중독성 높은 게임에 빠져 정신이 거기에만 집중된다면 학업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 건강에 무리가 올 수 있다. 구부정한 자세로 모니터를 가까이서 바라보며 게임을 하는 학생들은 디스크 증상이 올 수 있고, 시력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 셋째,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중독성을 위해 자극적 게임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극을 맛 본 사용자는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러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계에서 헤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게임에도 장점은 있다. 하지만 이는 적절한 사용을 전제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젓소는 물을 마시고 젓을 만들고, 독사는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든다.’라는 격언이 있듯 게임이라는 물을 통해 젓을 만들 수 있는 학생이 되기를 바란다.

5) 문제 해설 및 출제 의도

본 논술 문항은 논증 및 설득과 관련한 메타적 이해와 그 적용 및 표현 능력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동안 수능은 이해만을, 논술은 표현만을 분리하여 다루던 경향을 넘어서서, 논증 및 설득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의 적용 및 표현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설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질문과 이에 기초하여 그 능력을 공동체의 현실적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 작문 능력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적용 문제는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현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사적인 문제인 동시에 배경지식을 풍부하게 갖고 있어 별도의 사교육이 필요 없는 ‘게임 규제’ 관련 논의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제시문으로는 논증 및 설득과 관련하여 가장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동서양의 명문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가>는 동양고전 한비자(韓非子)에 나오는 유명한 「세난(說難)」편의 일부를 직접 인용한 것이고, <나>는 서양고전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내용을 고등학생이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해설한 것이다. 그리고 제시문 <다>는 2015 대수능 연계 교재인 EBS국어영역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B형 211면에 실린 지문을 축약한 것이다. 이처럼 제시문은 동서양의 고전 읽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논술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자는 취지에 어울리게 구성하였다.

6)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전체 구성 및 전개	제시문 <가>~<다>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논제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순서로 전개하면서, 전체적으로 각 논의의 구성 비율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15%
내용 이해 - 제시문 내용 파악 - 제시문 관계 파악	내용 파악의 정확성	<가> :설득에 성공하려면, 말주변이나 정보/지식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려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말하되, 상대가 민감하게 느끼는 바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가>의 ‘설득’에는 현실적인 측면과 처세의 의미까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성공적인 설득의 요건으로 화자의 특성, 청	15%

		<p>중들의 태도, 그리고 말 자체가 갖는 설득력 등 세 가지를 소개하고, 이 중에서도 설득의 관건은 진리이며, 결론의 진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타당한 논증이라고 주장한다.</p> <p><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연구 결과, 정보 전달이나 설득을 대하는 태도 내지 감성에 있어서 수용자들은 이익보다는 손해에 더 민감하며, 따라서 대중 설득에는 ‘위협 소구’ 전략이 적절하다. 위협 소구의 설득 효과는 적절한 정도의 위협에서 제일 높다.</p>	
	<p>비교 분석의 적절성</p>	<p><가>와 <나>: 모두 설득의 요건에 대해 말함. <나>는 진리가 설득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으면서도, 이상주의적인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에 <가>는 설득에 성공하려면 상대의 마음을 읽으라는,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충고를 주고 있다.</p> <p><가>와 <다>: 오늘날의 대중을 군주에 비견할 수 있다면, 대중에게 적절한 공포심을 유발하되 지나치면 안 된다는 <다>의 위협 소구 이론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되 ‘역린’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가>의 충고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가>의 경우 군주에게 “그렇게 하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포심에 호소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군주의 역린을 건드릴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p> <p><나>와 <다>: <나>와 <다>는 전자가 논리, 후자가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처럼 보여 일견 대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의 ‘위협’이 제대로 통하려면 사실에 근거한 위협, 실증적 근거를 갖는 위협이어야 할 테고, 이런 경우 위협 소구는 진리에 호소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므로, <나>와 <다>가 반드시 상반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는 <나>의 세 조건 중 대중이라는 수용자가 갖는 한 가지 특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본다면 <나>의 필자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점이 있다.</p>	<p>25%</p>
<p>문제 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적 설득 - 독자 고려한 설득 - 위협소구의 활용 	<p>설득의 논리성</p>	<p>청소년을 독자 대상으로 게임 규제를 옹호하는 설득적 글쓰기로 적절해야 한다. 첫째 기준은 <나>를 고려하여 논증 위주의 글쓰기를 논리적으로 잘 행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기준은 <가>를 고려</p>	<p>35%</p>

		독자 고려의 적합성	하여 독자의 정체성에 적합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 기준은 <다>를 고려하여 '위협 소구'를 활용하되 '역린'을 건드리지 않는, 즉 적절한 수준의 위협 소구를 활용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30%를 주고, 탁월성이 인정되는 경우 5%를 가산해 준다.	
		위협 소구의 적절성		
문장 표현	정확한 단어 선택과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성을 갖추었다.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성	10%

7)-1 우수답안 1

제시문 〈가〉 ~ 〈다〉는 설득의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방법의 공통점에 따라 제시문을 〈가〉 〈다〉와 〈나〉로 나눌 수 있다. 일단 제시문 〈가〉는 청자의 상황에 적절한 의견으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설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다〉도 이익보단 손실 강조를 통한 청자 위협을 통해 설득하는 방법인 '위협 소구'를 설명하고 있다. 청자의 상황에 위협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 효과적으로 설득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나〉는 청자의 감정을 자극하고 청자를 위한 맞춤형 설득보단 정확하고 분석적인 논리와 변증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청자의 마음을 꿰뚫는 설득도 곧 과학적 진리에 의한 설득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세 제시문은 더 비중있게 생각하는 방법에는 조금 차이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설득에는 공감의 설득, 분석적 설득, 또 손실강조의 설득에 대해 언급하며 효과적인 설득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게임은 흥미로우면서 학생들의 정서를 자극할 콘텐츠들이 풍부하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 있어야 하는 그들의 현실에 게임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게임은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 죽이고 피를 봐야만 끝나는 대부분의 게임은 학생들의 폭력성을 조장한다. 또한 즐기기 위한 게임인데도 승부욕을 자극해 패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인다. 레벨 업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학업 스트레스보다 커진다.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또한 또래와 어울려야 할 학생들이 점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고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현실 사회에서 집단 안에서의 존재감이나 정서교감 능력이 점점 하락하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된다. 나의 존재를 알아주는 온라인 세상에 빠져 현실을 잊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된 일상의 휴식처가 되어야 할 게임이 고된 일상이 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의 문제점은 재고가 심각하다. 또래와의 추억, 예쁜 학창시절의 기억을 위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게임의 적당한 규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7)-2 우수답안 2

위의 제시문들은 모두 효율적인 설득의 요소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는 차이가 있는데, 제시문 (가)와 (다)는 각각 상대방의 가치관과 상대방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로 인한 설득 효과를 추구한다. 먼저, (가)의 화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의 생각과 가치관에 맞추어 말 할 때 설득 효과가 높다고 말한다. (다)의 화자 역시 적절한 수준의 위협에 따른 설득의 효율성을 말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설득을 하며, 권위자의 역린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가)와는 달리 (다)는 이득의 강조보다는 손해의 강조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시문 (나) 역시 듣는 이의 마음 상태를 우호적으로 하는 것이 설득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나)에 따르면 결국 말하는 이의 특성과 듣는 이의 마음 상태 등의 요소들을 포괄하는 설득의 상위 개념은 논증을 통한 진리의 보장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설득의 주요개념으로 인식한 두 제시문과는 달리, (나)는 논증을 설득의 주요 개념으로 보았다.

오늘날 많은 고등학생이 게임을 좋아하고,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게임을 접할 기

회가 유례없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몇몇의 미숙한 고등학생은 게임에 중독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들의 게임을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친 게임은 고등학생의 건강과 학업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앉은 자세로 오랜 시간 모니터를 응시하는 것은 눈과 허리의 건강에 치명적이며, 게임으로 인해 학업에 소홀해 진다면 원하는 삶을 얻을 기회가 적어진다. 두 번째 이유는 재미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게임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고등학생이 일상의 무료함과 학업의 스트레스로 인해 게임을 찾게 되고, 게임이 주는 일시적인 충족감에 중독되어 더 많은 게임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이러한 고등학생들의 마음을 고려하여 게임을 규제하는 동시에 운동이나 미술 같이 장기적인 충족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7)-3 우수답안 3

제시문 (가),(나),(다)의 공통점은 모두 청자를 설득하는 데 있어 화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다만 그 초점은 제시문마다 (가)는 청자, (나)는 화자, (다)는 화자 및 청자로 조금씩 다르다.

(가)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청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본다. (가)에 의하면 주장하는 사람의 언변이나 의견을 모두 전할 수 있는 능력, 즉 화자의 설득능력은 부수적인 것이며 주장을 듣는 청자의 구미에 맞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여겨진다. 설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자의 욕망을 잘 헤아려 화자가 자신의 입장을 잘 조절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고등학생을 설득하는 글에서도 게임을 하는 고등학생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나)는 (가)에서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화자의 언변, 청중의 마음을 유도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 논증 등 화자의 설득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나)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화자가 진리를 전하는 방식이다. (나)는 어떤 문제이든 간에 해결방안에는 항상 최선의 방식인 진리가 존재하며 이것을 합리적인 논증으로 청자에게 전할 때 설득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게임을 즐기는 고등학생을 설득하는 글을 쓸 때에도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라는 진리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해야 한다.

(다)는 (가),(나)에 비해 구체적인 설득의 방식인 ‘위협 소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협 소구는 화자가 청자에 위협을 가하여 청자의 심리를 유도한다는 데 있어서 (나)와 유사하나, 설득 효과가 동일하지 않고 위협에 세기에 따라 달라짐으로 보아 (가)의 청자의 심리도 일정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설득문에서도 이를 활용하면 최대의 설득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게임은 휴식, 재미, 이야깃거리가 되는 감초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생에게는 최우선의 과제인 ‘공부’라는 것이 남아있다. 게임을 하게 되면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게 되어 공부에 할애할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게임은 효율적인 시간관리에 있어 치명적이며 중독의 위험도 있다. 게임이라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 공부를 해서 평생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놓치는 것은 고등학생의 입장에서도 손해일 것이다. 따라서 시간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게임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The 논술	2015 한양대 인문 모의 3차
[문제]	<p><가>와 <나>의 글 및 <다> 그림과 글의 내용을 논거로 삼아, 다음 명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권력에 대한 인간의 투쟁은 망각에 맞서는 기억의 투쟁이다.</p> </div>
제시문 (가)	
<p>푸코는 진리와 지식을 인식이 아닌 권력의 산물로 본다. 그리고 각 시대의 지배적 담론은 다른 담론과의 불일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고의 가능성 및 그 사고의 표현을 ‘구성’한다고 본다. ‘구성’한다는 것은, 진리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푸코에게 언어적 구성물인 텍스트는 개인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지배 담론과 저항 담론의 권력이 충돌하고 교섭한 결과물로 간주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무수한 과거의 사실들을 해석하고 구성하여 역사적 진실로 만드는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무수한 사료 가운데 특정한 역사적 사실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널리 인정된다는 것은, 그 역사적 진실을 구성한 역사가들이 비판자들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p>	
제시문 (나)	
<p>독일의 여성 작가 루이제 린저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반국가주의 사상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힌다. 사형수였던 그녀는 이듬해 나치독일이 연합군에 패배하면서 극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난다. 그녀는 감옥에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견뎌내며 몰래 일기를 써서 감추었다. 뒷날 그녀는 이 옥중일기의 출간을 계획하지 않았다. 어두운 과거는 그냥 조용히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기차 여행 도중 사람들과 우연히 히틀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20년도 지나지 않은 그 잔혹한 역사를 이미 잊고 있거나 거기에 무관심했으며, 심지어 히틀러를 옹호하기까지 했다. 크게 충격 받은 린저는 일기를 모아 『옥중기』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면서, 서문에서 “과거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미래란 존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거라는 것이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과거란 현재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며, 현재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악의 범 죄를 은폐하고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향해, ‘아름다운 영혼의 세계’로만 도피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며, 인간의 기억으로부터 억지로 추방된 것은 언젠가는 다시 강한 힘을 가지고 새로 나타난다고 경고했다.</p>	
제시문 (다)	



프란시스코 고야(1746~1828),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

고야는 화실에서 잠든 자신을 상상한다. 잠에 취해서 그의 이성은 무너지고 어둠 속을 배회하는 괴물같은 날짐승들에 의해 미혹되어 버렸다. 이 작품에는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올빼미들과 무지를 상징하는 박쥐들이 그려져 있다. 고야가 그린 이 악몽에는 그가 살았던 스페인 사회를 보는 그의 안목이 스며들어 있다.

1. 문제 풀이	
<p><가>와 <나>의 글 및 <다> 그림과 글의 내용을 논거로 삼아, 다음 명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권력에 대한 인간의 투쟁은 망각에 맞서는 기억의 투쟁이다.</div>	
1) 논제이해	
①	명제의 문리적 해석 (사전적 풀이)
②	<가>의 내용 중 명제와 연관되어 명제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을 요약하시오.
③	<나>의 내용 중 명제와 연관되어 명제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을 요약하시오.
④	<다>의 내용 중 명제와 연관되어 명제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을 요약하시오.
⑤	명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가>의 내용을 연관시킬 것.
⑥	명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나>의 내용을 연관시킬 것.
⑦	명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다>의 내용을 연관시킬 것.
2) 제시문 독해 (요약 및 비교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	<p>제시문 내용 (선택과 삭제)</p> <p>푸코는 진리와 지식을 인식이 아닌 권력의 산물로 본다. 그리고 각 시대의 지배적 담론은 다른 담론과의 불일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고의 가능성 및 그 사고의 표현을 ‘구성’한다고 본다. ‘구성’한다는 것은, 진리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푸코에게 언어적 구성물인 텍스트는 개인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지배 담론과 저항 담론의 권력이 충돌하고 교섭한 결과물로 간주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무수한 과거의 사실들을 해석하고 구성하여 역사적 진실로 만드는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무수한 사료 가운데 특정한 역사적 사실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널리 인정된다는 것은, 그 역사적 진실을 구성한 역사가들이 비판자들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대학교에 들어간 후 교양수업을 듣다보면 미셸푸코라는 이름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푸코는 담론철학을 제시한 현대철학자입니다. <가>의 내용에 의하면 권력층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담론인 지배적 담론이 다른 담론에 비해 우위를 점하면서 진리를 표방한 텍스트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저항하는 저항담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명제와의 연관성을 찾아봅시다. 망각은 역사적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하는 권력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결탁한 역사가들이 주도하는 거대담론을 따를 것이 아니라, 저항담론으로써 중요한 과거의 사실들을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p>
(나)	제시문 내용

	<p>독일의 여성 작가 루이제 린저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반국가주의 사상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힌다. 사형수였던 그녀는 이듬해 나치독일이 연합군에 패배하면서 극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난다. 그녀는 감옥에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견뎌내며 몰래 일기를 써서 감추었다. 뒷날 그녀는 이 옥중일기의 출간을 계획하지 않았다. 어두운 과거는 그냥 조용히 내버려 두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기차 여행 도중 사람들과 우연히 히틀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20년도 지나지 않은 그 잔혹한 역사를 이미 잊고 있거나 거기에 무관심했으며, 심지어 히틀러를 옹호하기까지 했다. 크게 충격 받은 린저는 일기를 모아 『옥중기』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면서, 서문에서 “과거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미래란 존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거라는 것이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과거란 현재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며, 현재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악의 범죄를 은폐하고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향해, ‘아름다운 영혼의 세계’로만 도피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며, 인간의 기억으로부터 억지로 추방된 것은 언젠가는 다시 강한 힘을 가지고 새로 나타난다고 경고했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다음으로 <나>입니다. 나치 치하에서 고통을 받았던 여인이 과거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사람들이 망각하고 지내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옥중기’라는 책을 발간하여 자신의 증언과 그 당시의 기록을 통해 망각된 역사를 수정하려 합니다. <나>는 명제, <가>와 망각에 대한 투쟁으로써 잊힌 기억을 되살리려는 저항을 해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그 저항의 방법으로 직접 그 역사를 겪은 사람이 증언과 그 당시의 기록으로써 기억을 되살리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p>
<p>(다)</p>	<p>제시문 내용</p> <p>프란시스코 고야(1746~1828),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p> <p>고야는 화실에서 잠든 자신을 상상한다. 잠에 취해서 그의 이성은 무더지고 어둠속을 배회하는 괴물같은 날짐승들에 의해 미혹되어 버렸다. 이 작품에는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올빼미들과 무지를 상징하는 박쥐들이 그려져 있다. 고야가 그린 이 악몽에는 그가 살았던 스페인 사회를 보는 그의 안목이 스며들어 있다.</p>
	<p>기준에 따른 독해 (재구성)</p> <p>마지막으로 <다>입니다. 고야의 작품으로서 이성과 괴물의 관계를 나타낸 작품입니다.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라고 불리는 부정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문하는 작품입니다. 이를 명제, 다른 제시문들과 연관시켜보면 괴물은 역사적 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는 과거의 끔찍한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성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p>
<p>3) 개요 작성</p>	
<p>1문단</p>	<p>명제의 문리적 해석 (사전적 풀이)</p>
	<p>명제의 핵심은 권력에 의한 선택적 망각에 저항하기 위해 대중들은 중요한 과거</p>

	의 사실을 계속 기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문단	<가>의 내용 중 명제와 연관되어 명제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을 요약하시오.
	지배적 담론, 저항 담론, 조작된 진실.
3문단	<나>의 내용 중 명제와 연관되어 명제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을 요약하시오.
	역사적 사실의 기록, 역사왜곡에의 저항.
4문단	<다>의 내용 중 명제와 연관되어 명제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을 요약하시오.
	집단적 성찰을 통한 집단적 이성적 저항의 필요성.
5문단	명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가>의 내용을 연관시킬 것.
	명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나>의 내용을 연관시킬 것.
	명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다>의 내용을 연관시킬 것.
	동북공정, 독도, 위안부, 임나일본부설, 발 해문제 등을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제시할 수 있을 것.
4) 답안 작성	
1문단	명제는 권력이 지배적 담론으로써 역사를 왜곡하려는 것에 대해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이성적으로 저항담론을 형성하여 투쟁하여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후세에도 널리 알려야함을 말하고 있다.
2문단	<가>에 의하면 권력은 자신의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하여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지배적 담론을 형성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저항담론으로써 권력에 맞서 역사기록의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3문단	<나>는 참극을 겪은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해 침묵하여 참극이 잊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비참했던 상황에 대한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과거가 인류의 미래를 위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문단	<다>는 이성이 잠들었을 때 괴물이 깨어난다고 하며 이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괴물은 과거의 중요한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하려는 권력 또는 대중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망각으로 볼 수 있다.
5문단	이러한 명제와 제시문들의 논지를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연관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일본은 역사적 증거가 명백한 위안부 문제를 국가적, 조직적으로 왜곡, 조작하고 지배적 담론을 형성하여 자신들이 저질렀던 끔찍한 잘못을 은폐하려고 한다. 이러한 권력에 의한 망각에 투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한다. 첫째, 위안부 문제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뭉쳐 저항담론을 형성하여 일본이 자신들의 교과서에 자신들의 과오를 역사적 서술로 남길 것을 강하여 요구해야 한다. 둘째, 위안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그 당시의 증언과 기록을 통해 이를 세계에 고발함으로써 인류가 이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 지나간 일이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중들이 '깨어 있는 이성'으로써 이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할 것이다. 한 사람의 이성으로는 다수의 무지와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을 알리기 역부족일 수 있지만, 다수의 집단적 성찰은 이에 맞서 역사적 진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 문제 해설 및 출제 의도	

본 논술 문제는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 이 주제를 논거로 추상적인 명제를 풀어 설명하는 능력, 나아가 이를 현실의 사례와 결부시키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문제에서 설명을 요구한 명제(“권력에 대한 인간의 투쟁은 망각에 맞서는 기억의 투쟁이다.”)는 밀란 쿤데라의 소설 『웃음과 망각의 책』에 나오는 구절로, 20세기 이후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화두가 된 ‘기억 투쟁’의 의의와 중요성을 함축한 표현이다.

‘기억’은 망각이라는 관성과 망각을 조장하는 권력에 맞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 긴요한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위한 방법과 실천이 인문학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최근의 한국 사회 전반에서도 ‘기억’은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가>~<다>의 세 지문의 주제는 명제 풀이의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세 지문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보기로 제시한 세 지문(그림 포함)은 각각 ‘역사와 권력’, ‘기록과 증언’, ‘이성’을 핵심어로 내포하고 있다. 이는 망각에 맞서는 기억 투쟁을, ① 역사 기술, ② 기록과 증언, ③ 이성의 차원에서 설명하라는 뜻이다. 수험생들은 관점과 지식에 따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기억 투쟁과 관련이 되는지를 다채롭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요구 사항은 추상적인 명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결부지어 설명하라는 것이다. 이는 사고의 구체성 및 균형 감각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수험생들은 고교 교과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근거로 제시할 수도 있고, 시사적인 사회 현안에 서도 사례를 가져올 수 있다. 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어진 명제에 대한 어석적 풀이를 넘어선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역사 기술 주체에 따라 역사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이 또 후대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수험생들은 고교 교과 과정에서 다양하게 학습하였다. 특히 <가>는 역사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Ⅱ (윤여탁 외, 미래엔, 252~254면)에 실려 있는 E. 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와 유사한 주제를 담고 있고, 역사 기록의 현재성을 강조한 <나>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Ⅱ (박영목 외, 천재교육, 104~107면)에 실린 강만길의 ‘왜 역사에서 현재성이 중요한가’라는 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또한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왜 기억이 필요한지, 지속적 기억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기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의식도 사회에 대한 관심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다. 그림<다>에는 이에 대한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해석을 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6)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구성과 전개	문제의 명제에 대한 사전적 풀이, 각 지문의 주제를 도출하여 이들을 명제 풀이의 논거로 활용하는 방법, 구체적인 사례를 통합하는 일련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는가를 평가한다.		15%
내용과 주제	지문의 이해	<가> 에서 ‘역사와 권력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였는가. <나> 에서 기억을 위한 ‘기록과 증언’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는가. <다> 에서 ‘이성과 괴물’의 우화적 관계를 문제 요지에 맞춰 파악하였는가.	25%

	논리의 연결	<p>망각에 맞서는 기억의 투쟁은, 결국 권력에 맞서 역사를 서술하고 남기려는 투쟁임을 잘 설명하였는가.</p> <p>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끔찍한 사건을 기록하고 돌아보고 증언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였는가.</p> <p>기억은 사안과 그 방법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결부되어있음을 잘 설명하였는가.</p> <p>이 세 가지에 대한 기술이 조리 있게 전개되었는가.</p>	25%
	사례의 통합	<p>사회적 또는 인류의 공리 차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서 끔찍한 결과를 되풀이한 사례를 잘 끌어왔는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건과 그를 위한 방법을 적절하게 제시했는지 그 가운데 수험생의 논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는지.</p>	20%
문장 표현	정확한 단어 선택과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성을 갖추었다.	15%	

7)-1 우수답안 1

명제에서는 인간은 잊혀져가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권력에 대해 투쟁한다고 말한다.

제시문 가에서는 역사가들이 많은 사료 가운데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역사의 진실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역사적 진실에 대해 비판자들은 잊혀져가는 또 다른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자 역사가들에게 투쟁한다. 5.18민주화 운동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5.18민주화 운동에 대해 광주폭동이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반박을 했고, 결국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강한 권력을 가진 전두환정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폭동이 아닌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려는 투쟁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반국가주의 사상범이었던 린저가 과거의 독일의 참혹한 역사를 알리고자 옥중기라는 감옥에서의 수기를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피해여성이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일본 군인들에게 심한 성적 모독을 받았다.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피해여성은 잊혀져가는 그들의 피해경험을 세계에 알렸다. 즉 일본이라는 권력에 대해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망각되어지는 그들의 경험을 알리기 위해 투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는 어리석고 무지가 만연한 스페인 사회를 비판하는 고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고야는 어리석었던 스페인사회를 사람들에게 잊지 않게 하려고 이 그림을 그렸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시대의 정약용의 애절양이라는 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한 가족이 아이를 낳자 군적의 부담을 받게 되었고, 이에 가장은 경제적 부담을 느껴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자신의 생식기를 잘랐다. 이를 본 정약용이 부당한 조선의 상황을 잊지 않기 위해 애절양이라는 시를 지었다. 이는 조선의 부당한 권력에 대해 정약용이 당시의 사회를 잊지 않으려고 투쟁했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1문단에서 명제를 간단히 사전적 정의에 따라 풀이하고 시작한 것이 좋습니다.

2문단에서 지배적 담론이 규정한 것이 역사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 좋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사례로 들어 그 역사적 성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거대담론과 저항담론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도 좋습니다.

3문단 린저가 잊혀가는 과거를 인류에게 기억시키기 위해 **증언과 기록으로써** 책을 냈던 점을 좀 더 명확히 해주었으면 좋을 듯합니다. 린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위안부 피해여성들을 사례로 제시한 점은 의도했든 아니었든 굉장히 좋습니다. 예비추론을 통한 논증력에 큰 점수를 받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4문단에서는 **이성의 중요성, 그리고 괴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성의 중요성이 아닌 전달의 도구로서의 작품을 강조하다보니 구체적 사례도 그 쪽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과적 지식이 풍부하여 사례를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7)-2 우수답안 2

주어진 명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기억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억의 한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사실을 망각하거나 특정한 사실을 기억 속에서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억의 한계에 맞서서 권력에 대한 투쟁을 이룩하는 사례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들 수 있다.

일본정부와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왜곡된 주장을 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와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가>에 따르면 이러한 일본의 왜곡된 주장은 권력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진리이다. 일본정부는 피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지원했다는 주장을 하고 비인간적인 일본군의 행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들만의 진리와 논리를 만들어낸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차원의 역사 왜곡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거대권력에 맞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을 통해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즉, 기억의 한계를 극복하여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인식하는 기억의 역할이 필요하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정부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태도이지만, 우리 국민의 무관심과 우리정부의 소극적인 문제해결 태도도 지지부진한 문제해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나>에 따르면, 과거는 현재 속에 담겨있는 것이며 과거와 현재는 절대 분리 될 수 없다. 인간은 현재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며 과거의 사건을 기억 속에서 역지로 밀어 내거나 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맞서기 위해 우리 국민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다>에 따르면, 망각에 맞서는 기억의 투쟁을 위해서는 이성의 역할이 중요하다. 만약 이성이 무뎠다면 인간은 어리석음과 무지에 현혹되 권력에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식민사관을 가진 우리나라 학자들을 이성이 무뎠어 어리석음에 현혹된 인간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피해 여성들에게 돌리고 혹은 위안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식민사관은 무뎠은 이성의 결과물로서 진실된 역사에 바탕을 둔 기억의 투쟁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 1문단에서 처음에 명제에 대해 간단한 사전적 정의를 내린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체적사례인 위안부 문제를 제시하여 <가>, <나>, <다>의 논지를 전개하며 그 논지와 연결시켜 바로 바로 답안을 작성한 점도 신선합니다.

2문단에서 <가>의 논지를 권력자들에 의한 진리의 왜곡과 일본이 위안부의 진실을 흐리는 점을 연결시킨 점이 좋습니다.

3문단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현재 속에서 재해석되는 것임을 밝힌 점은 좋았지만 위 답안과 마찬가지로 **증언과 기록의 중요성을 부각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례로 든 국민의 무관심과 정부의 소극적 문제해결 태도가 **조금 일반적이고 추상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속에서 과거가 재생산되며 이러한 과거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미래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4문단에서 이성의 역할을 지적했고, **그 이성을 잃은 대상을 식민사관을 가진 역사가들로 규정하여 논지를 전개한 점이 아주 좋습니다.**

7) -3 우수답안 3

주어진 명제는 권력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가)에 따르면 진리와 지식은 권력의 산물이다. 객관적인 기록보다는 지배와 저항이 충돌한 결과로 만들어진다. 때문에 부조리한 역사는 권력에 의해 은폐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크다. 만약 잔혹한 역사가 망각된다면, (나)와 같이 사람들은 권력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감정이 무뎠거나 심지어 미화(美化)까지 시키는 폐해를 가져온다. (다)의 고야의 작품을 토대로, '잠자는 것'은 망각을 의미한다. 잠에 빠지면 이성이 흐려지고 어리석고 무지해진다. 과거는 현재와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이므로 망각으로 인해 그 실체가 왜곡된다면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망각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권력의 부당한 행동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력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망각을 막으려는 사례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및 독재정권시기에 발표된 문학작품이 수록된 것이다.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우리 민족을 잔인하게 식민정책으로 지배하였고, 군사 독재정권시절에는 정부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억압하였다. 이에 대해 문학인들은 저항하고자 그 역사들을 문학 작품으로 기록을 남겼고, 후손들은 그 역사를 기억하며 그것을 공부해왔다. 두 번째 사례는 일제강점기에 가장 잔인한 역사 중에 하나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수요일마다 시위를 하는 것이다. 일본은 권력을 앞세워 조선 소녀들을 성 노예로 삼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안부 문제를 수요시위로 열면서 일본의 잘못된 역사를 잊지 않고 또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가니', '한공주' 등 가해자가 권력을 앞세워 풀려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부조리한 사회현실을 영화화한 것이 있다. 이처럼 영화화를 하면 대중적으로 알려져서 사건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1문단에 바로 명제에 대한 간단한 해석이 있어 좋습니다. <가>를 설명하며 진리와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지적한 점 좋습니다. <나>의 린저가 아닌 일반인들에 포커스를 맞춰 그들이 역사적 사실을 망각을 하고 있는 점을 명제와 연결시킨 점 또한 좋습니다만 <나>의 핵심은 린저의 망각에 대한 투쟁이므로 이를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다>의 고야의 작품에 대한 해석은 이성의 중요성을 밝혔고, 괴물을 망각으로 규정한 점은 좋습니다. 문단을 조금 더 세분화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문단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역사 망각에 대한 투쟁을 보여준 점은 좋습니다. 특히 '도가니', '한공주' 등의 영화를 사례로 제시한 점은 독창적입니다. 그러나 그 사례들이 단순히 망각에 대한 투쟁이라는 큰 틀에서 제시된 것에 불과하여 논지의 구체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